


문화 만개


겨울호

vol. 02

2015.12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성탄특별 가족뮤지컬

성냥팔이 소녀

일시

12. 23(수) : 10:10/11:20

12. 24(목) : 10:10/11:20

12. 25(금, 성탄절) : 11:00/14:00/16:00

* 평일 공연은 가족뮤지컬 정기공연과 동일하게 진행(전화예약)

* 장소 | 청룡홀

주최 |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출연단체 | 화이트캐시어터컴퍼니(극단 누리)

관람료 | 전체 10,000원(할인가 : 5,000원 ~ 8,000원)

관람대상 | 24개월 이상



산타클로비음악회

일시 | 12. 25(금, 성탄절) : 10:30, 13:30, 15:30

장소 | 청룡홀 로비

공연단체 | 브라보브라스앙상블

2015 웃는얼굴아트센터 송년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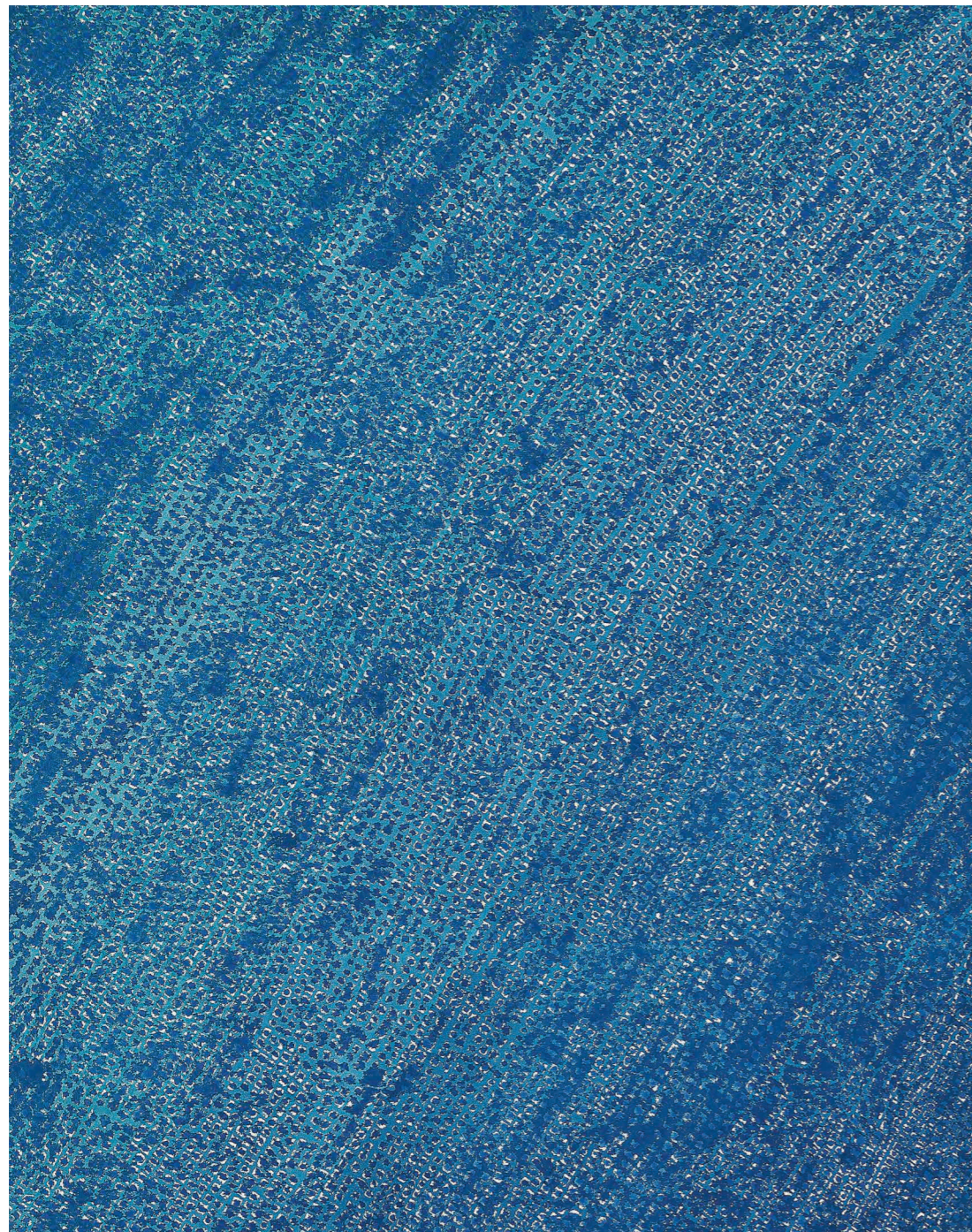
김경호 & 투하츠 콘서트

2015. 12. 29(화) 저녁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문의 053)584-8719 | 전석 4만원





1
단색화의 대표작가 김환기의 1971년 작
253x202cm

어느 모임에서 우리네 아름다운 한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필자의 지인이 어느 갈라 리셉션(Gala Reception)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을 때의 경험담을 전해주었다. 이야기의 요점은 지인의 부인이 입었던 한복이 외국 참석자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끌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는 국제적 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아마도 여러 대륙의 많은 나라 여인들이 각기 자기네 고유 전통 복장을 뽐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외국인이 '몰려와서' 지인의 아내가 입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지인은 그들이 우리 이웃 나라의 전통 복장보다 한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자기 아내의 옷 자랑을 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조금은 씩스럽게 말했다.

단색화(單色畵)는 우리 마음의 DNA에서

글 · 자료 이성낙

그때 필자는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사모님께서 입은 한복에서 단색화(單色畵, Monochrome)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 국내 미술계는 오래전부터 해외 미술 애호가들에게 우리 단색화만의 고유한 우월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그 결과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2015)에서는 우리의 <단색화> 전시가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이 선별한 특별전(Collateral event)으로 우뚝 섰다. 이는 국내 미술계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시회에서는 작고한 김환기(金煥基, 1913~1974) 화가의 작품을 비롯해 현존하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해외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실로 한국 현대미술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는 우리의 천재 작가 백남준(白南準, 1932~2006)이 전 세계 미술계에 이름을 떨친 것 못지않은 의미를 가진다. 단색화만을 꾸준히 추구해온 국내 미술인 그룹의 결정체를 국내외 미술계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2015년 홍콩 가을 경매(Hong Kong Autumn Auction 2015)'에서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 고가에 팔렸다. 단색화의 대명사인 김환기 화가의 1971년 작품(19-VII-71 #209, 253×202cm)이 외국인에 의해 원화 47억 2,100만 원(3,100만 홍콩달러)에 낙찰된 것이다.^(사진 1)

그런데 필자는 한복에 담겨 있는 단색화 코드와 국내 미술계가 독보적으로 추구해온 단색화의 뿌리는 고려청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아름다움의 극치이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이는 단아함의 대명사인 고려청자와 백을 같이한다는 얘기가.

이와 관련해 한국고미술사계의 거성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혜곡 최순우(兮谷 崔淳雨, 1916~1984) 선생님과의 귀한 일화가 떠오른다.



2 혜원 신윤복 그림의 일부분. 여인의 흰 저고리와 청색 치마가 보인다

1962년 봄 어느 날, 필자는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을 통해 '한국 보물 5000년 展'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필자는 다음 날 벽찬 가슴을 달래며 기차로 약 9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전시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당시 '한국 보물 전시장'을 감독하며 현장을 지키고 계시던 최순우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전시된 국보급 유물의 소장자 네임태그에서 '간송 미술문화재단 소장'이라는 글귀를 다수 발견했다. 필자는 간송 전형필(澗松 全鏐彌, 1906~1962) 선생님이 교주(校主, 오늘날의 이사장)로 계시던 보성고등학교 출신인지라 그 네임 태그들이 너무도 반가웠다. 그 얘기를 하자 혜곡 선생님은 얼마 전 간송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전해주었다.

당시 독일에 거주하는 교포의 수는 100명 단위를 넘지 못하던 시절이라 혜곡 선생님께서는 나이 어린 대학생인 필자를 무척 편하게 해주셨다. "고려자기 전통의 명백이 끊긴 것은 도공들이 기술 이전에 너무나 인색해 자기 자식에게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필자의 말에 혜곡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그게 바로 일제의 식민사관이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의 기술로 더 고운 비취색(翡翠色) 청자를 만들 수는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옷은 물론 오늘의 한복에서 도포(道袍), 바지저고리, 마고자의 색깔로 '쓱색' 또는 비취색을 흔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일세." 즉 우리 사회 지도층의 눈높이가 바로 고려시대 도자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실로 차원을 달리하는, 색감에 대한 해석이 아닐 수 없었다.

혜곡 최순우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필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고려자기와 우리네 전통 한복은 오래된 '단색화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네 여성들이 몸에 걸친 저고리 색과 치마 색의 콤비(조합) 능력은 놀라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나 혜원 신윤복(蕙園 申潤福, 1758~?)의 그림에 나타난 여인네들의 치마 및 저고리의 색이 각기 다른 단색이면서도 대칭적인 콤비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사진 2) 시켓말로 아주 '시크(Schick)'하다.

얼마 전 국내 한복 의상 문화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한복예술가 이영희 선생의 전시회가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이영희 선생은 "한복은 색(色)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함축된 언어로 우리네 의상 문화의 한 단면을 명료하고 감동적으로 정리·집약했다.^(사진 3)

그래서 필자는 우리 한복의 색이나, 고려자기의 색이나, 화가 김환기에서 시작된 국내 단색화 장르는 바로 '단색화'라는 우리 마음의 DNA를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계 미술사에서 또 다른 큰 획(劃)이기도 하다.

3

한복예술가 이영희의 한복에서 단색화를 본다 (사진 작가: 김중만)



이성낙

- 가천대 명예총장, 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 원현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클림트의 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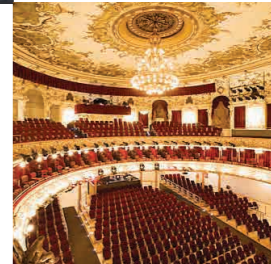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글 · 자료 권순현

지난 봄 창간호에서 미술과 음악의 융합을 주제로 독자님들은 만났던 권순현입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근대, 현대로 나누어 이런 저런 예술 관련 이야기들을 독자님들과 나누었지요. 이번에는 대략적인 그 시대의 분위기 말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예술가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들이 예술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든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출간한 책이 바로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였습니다. 겨울호에는 이 책 속에 담긴 내용 중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분리파관

부르크 극장 외부
& 관객석

클림트의 키스와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먼저 클림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클림트는 살아생전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부를 일궈낸 비즈니스맨 성향이 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건축물을 장식하는(요즘으로 말하자면 인테리어 같은 것) 사업을 시작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디자인한 '부르크 극장의 관객석'은 큰 호평을 얻었고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수훈하는 등 최고의 거장으로 활동함은 물론, 당대 주류미술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자신과 뜻이 맞는 몇몇 미술가들과 함께 '빈 분리파'를 창시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당대 주류미술계의 흐름에 따라가며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클림트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분리파의 첫 전시회에서는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등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건축한 빈의 '분리파관'이 지금도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것은 당시 클림트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증명해 주고 있지요. 참 멋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간 아티스트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아쉬울 것이 없던 클림트는 한 여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 편력을 자랑하는데 그런 바람둥이 클림트에게도 단 한 사람의 뮤즈가 있었답니다.

바로 '에밀리 플뢰게'라는 여인이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지만, 안타깝게도 클림트의 남동생과 에밀리 플뢰게의 언니가 부부였기에 그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친구로 남아서 서로를 애뜻하게 보살피 줍니다. 매년 여름 함께 휴가를 떠나고, 서신을 나누고... 소울메이트로 남아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살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클림트가 노쇠해져서 죽어갈 때, 제일 먼저 찾은 여인이 에밀리 플뢰게였고, 그녀는 클림트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의 임종을 함께해줍니다. 그제 끝이 아닙니다. 클림트가 죽고 난 뒤, 에밀리 플뢰게는 클림트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한 클림트의 사생아라고 찾아온 4명의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골고루



클림트와 에밀리 플뢰게

분배해 주었으며, 그와 나누었던 서신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보통의 부부사이였다면, 사생아에게 유산을 나누어주었을까요?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죽은 시신을 '부관참시'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림트와 에밀리 플뢰게는 생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보통의 부부 이상으로 서로를 애뜻하게 아껴주고, 사랑한 사이였습니다. 클림트는 그녀와의 그런 이룰 수 없지만 애뜻한 감정을 바로 그림에 담아내었지요.

이 그림을 보고 후대 사람들은 그림에 등장하는 남녀를 클림트와 에밀리 플뢰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에서 나오는 두 주인공의 표정이나 자세, 그들이 키스하는 장소가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인데요.

보통 남녀가 키스를 하면 입술과 입술이 닿지만, 이 그림에서 남자는 여성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했으나 여성이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표정은 그리 밝게 느껴지지 않고 무엇인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주인공이 서있는 오른쪽은 낭떠러지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위치지요?

클림트는 에밀리 플뢰게와의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면서 그 애뜻한 심정을 이 그림에 담아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그림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상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려야죠...



줄리에타 귀차르디



베토벤

이 곡이 작곡된 것은 베토벤이 20대 후반...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입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빼어난 연주 실력과 작곡능력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한 귀족 출신의 아름다운 처녀 '줄리에타 귀차르디'와 베토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둘만 좋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줄리에타의 집안은 귀족 집안이었고, 베토벤은 술주정뱅이 테너가수 아버지가 가장인 지극히 일반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이지요. 줄리에타 귀차르디의 집안에서는 어떻게 가난한 음악가와 결혼을 하려고 하나며 극심한 반대를 했고, 베토벤 역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바치려고 쓴 곡이 바로 소나타 14번입니다. 보통 '월광'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곡이지요... 교과서에는 월광곡이 '아름다운 달빛을 연상시키는 베토벤의 명곡'이라고 나오지만, 베토벤은 그 곡에 '월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시인 렐시타프가 '루체른 호숫가에 비치는 달빛같다'라고 해서 '월광곡'이라는 별칭이 굳어진 것입니다.

자... '월광곡'을 이야기하기 전에 '월광'의 주요 멜로디를 떠올려볼까요?(직접 들어본다면 더욱 좋겠지요) 1악장은 올림 다 단조의 아주 고요하고 슬픈 화성진행에 이은 한 남자의 탄식과 같은 멜로디가 들려옵니다. 달빛같이 들릴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현실의 벽 앞에서 한숨을 쉬는 것 같은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지만, 힘든 현실 앞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르는 모습이랄까요? 악장 전반에 걸쳐 들리는 우울함과 먹먹함에서 당시에 베토벤이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악장은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요... 밝은 장조로 좋은 기억들을 더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 3악장이 사실 이 곡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장에선 '달빛'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프레스토 아지타토... '매우 격렬하고 빠르게'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분노가 폭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토벤이 이 곡을 다 써갈 때 쯤... 줄리에타 귀차르디는 집 안의 뜻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다른 귀족한테 시집을 가버립니다. 베토벤 역시 이런 최악의 스토리를 이미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마지막 악장에서 모든 분노를 쏟아낸 것이지요.

클림트의 '키스'는 클림트가 사회적으로 이룰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그림으로 남겨냈고, 베토벤의 '월광' 역시 그가 신분의 차이로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을 담아냈기에 음악과 미술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맥락으로 함께 엮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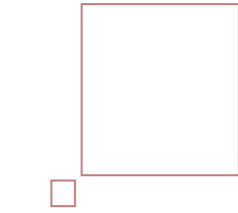


잔 에뷔테른의 초상

모딜리아니와 잔 에뷔테른은 정말 죽음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 사이였습니다. 가난한 화가인 모딜리아니가 차디찬 방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 시신을 본 그의 아내 잔 에뷔테른은 다음날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으니깐요.

그렇게 죽음조차 그 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낸 '잔 에뷔테른의 초상화'는 그러한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그림에 투영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지금 그 그림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습니다.

모딜리아니와 잔 에뷔테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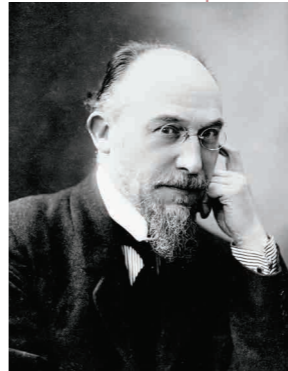


Je te veux

대중가요에서 나오는 가사의 절반 이상이 사랑이야기인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 역시 그 이루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과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려낸 그림들이지요. 모딜리아니의 '잔 에뷔테른의 초상'입니다.



수잔 발라동



에릭 사티

음악 역시 에릭 사티의 'Je te veux'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불어로 '난 당신을 원해요'라는 제목의 이 곡은 에릭 사티가 일생에 단 한번 진정한 사랑에 빠졌던 시기에 작곡이 되었지요. 수잔 발라동이라는 모델 겸 화가와 에릭 사티라는 음악가는 파리에서 만나 서로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3~4개월 사이에 이 아름다운 곡이 세상에 나오게 되지요...

물론 사티와 수잔 역시 6개월 만에 성격차이로 결별하지만, 사티는 죽을 때까지 다른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잔을 너무나 진심으로 깊게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티가 죽고 난 뒤, 사티의 방에서는 서로를 그려준 초상화, 수잔에게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단 한 여인에게만 마음을 준 사티의 지고지순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티가 그 단 한명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당시에 그 사랑을 담아 작곡한 'Je te veux'의 그 진정성이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미술과 음악에만 돋보이는 건 아닐테지요... 찾아보면 정말 많은 예술의 소재가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엔 '역사'를 큰 틀로 예술 분야의 글을 이어 나갔는데, 이번엔 '사랑'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을 글로 풀어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사랑이 충만한 삶, 그로 인해 더 풍요로워지는 인생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현

-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40여 장의 클래식 개인앨범 발매, 60여 장의 음반 프로듀서로 활약
- 이지클래식, 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체르니 콘서트 등 참신한 공연으로 매진행렬 및 호평
-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출간, 국립중앙도서관 우수도서 선정 및 베스트셀러 진입
- 계명대학교, 신한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 출강, 네오무지카 대표로 재직

춤을 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든다면
 춤의 기원은 아마도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누구나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소통의 방법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 자신의 감정을 실는 것을

우리는 춤이라 했다.

삶이 녹아드는 춤의 세계

춤, 삶을 춤으로

글 강정선
 사진 이재봉
 자료 대구무용협회 제공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신과 소통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원시종교의 기원 의식을 춤으로 나타낸 것이고, 사람과 소통하려 했다면 민중 속에서 발전 해온 삶과 연계된 춤과 감상하는 무용으로 나뉘질 것이다. 사회가 발전 하면서 춤추는 사람과 감상하는 사람이 나뉘지고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교감하는 시대가 오늘날 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춤은 그 기원은 같았지만 발전 양식은 달랐다. 춤 속에는 춤추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들의 말이 있고, 그들만의 표현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은 그들이 사는 공간의 제약에 따라 민족의 특성이 되고, 그 민족의 문화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숄홀에서 열렸던 대구국제무용제(대구무용협회 주관)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하는 의미 깊은 행사였다. 지역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 속의 다양함을 무용을 매개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춤을 통해 삶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춤으로 표현함으로써 삶 속에 담긴 철학을 드러내고자 한다.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과 발끝으로 이어지는 몸의 선을 통해 그들은 관객에게 말한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무용수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삼는다.

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일반인과의 시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 연습이라는 각고의 시간은 아마도 아주 느리게 흘러갈 것이며, 무대 위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만큼 빨리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무용수가 흘리는 땀의 양 만큼 관객들은 그에게 집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을 알기에 그들이 수놓는 인생의 춤은 아름다움이며 고뇌이고 사랑이다. 춤이 좋아 춤을 추는 모든 무용수들은 진정한 춤꾼이다. 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춤꾼들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미식 여행과도 같기에 이번 대구 국제무용제는 또 다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본다.



춤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4일간 소극장에서 펼쳐진 춤판은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의 잔잔한 감정과 휘몰아치는 격정의 거친 호흡,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까지 느낄 수 있었던 흥분된 시간이었다. 캐나다의 '서든리 댄스 시어터'의 'Art of war'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통해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현대무용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미국에서 시작한 현대무용은 이제 나라마다 다양한 팀과 무용수들이 그들만의 색깔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념을 추구하는 무용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특히 서든리 댄스 시어터에서 돋보였던 정정아 무용수는 한국을 빛내는 안무가이자 무용가로 자리매김한 해외무용스타였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방식이 다른 이국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미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반면 독일의 현대무용은 캐나다의 현대무용과는 역사적 배경이 조금 다르다.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인의 고뇌와 함께 출발해 그들만의 주관적인 표현주의 무용으로 성장했으며, 미국과의 교류 이후 신 표현주의로 발전했다. 이번 국제 무용제에 참가한 독일의 '체임게버(CHAM GEBBER)'의 'BRICK OF A MAN'은 독일의 신표현주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던 무대였다.

한국의 유승관댄스프로젝트의 '학연화연'은 젊음의 힘을 보여준 무대였고, 유니버설 발레단의 '심청-문라이트 파드되'는 이미 세계가 감동한 한국의 창작 발레로 유명하기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으로, 일부만 올린 무대였으나 충분히 발레 '심청'의 위용을 보여준 무대였다. 또한 전효진 발레 컴퍼니의 '카멜리아' 역시 실험적인 무대로 올려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발레는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 궁정연회에서 출발하여 프랑스에서 대중 발레로 자리 잡게 된 춤이다. 유럽에서 오페라의 인기로 놀려 시들어갈 때, 러시아에서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러시아로 전해졌고 이후 러시아에서 수많은 고전발레를 낳게 됐다. 토슈즈라는 발레의 독특한 신발이 발레를 더 유명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토슈즈를 신고 완벽한 가벼움과 날아다니는 듯한 이상적인 몸짓으로 춤을 추기까지 발레리나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나 발레의 아름다움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발레단을 갖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배출한 나라로 위상이 높다.



2012
살풀이춤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무용도 이번에 만날 수 있었다. 중국 장춘가무단의 '짱족춤'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춤과 북춤, 부채춤 등 우리나라의 북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춤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공연이었다.

일본 안무가 노리히토 이시이의 '샤몬'은 현대사회의 몸과 광기 그리고 에로티시즘의 개념을 담은 작품으로 남녀가 상의를 벗은 채 등장하는 파격적인 모습이 인상적인 무대였다. 우리에게선 조금은 낯설었으나 섬세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아프리카에서 참가한 'West African Dance Artist Group'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면서 접하기 쉽지 않은 아프리카 문화의 한 부분을 감상하게 되어 관객의 입장에서 대구국제무용제는 즐거운 일의 연속이었다.

세계적 안무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이 주를 이뤄 큰 성과를 보여준 이번 대구 국제무용제는 민속춤을 비롯해 현대무용, 발레가 어우러진 알찬 구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연 마지막을 장식한 백경우의 '살풀이춤'은 박록주 전국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한국 춤의 아름다움과 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한국 전통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장르의 춤이 있는데, 그 중 '살풀이'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으로 무속의식에서 출발하여 시대가 바뀌면서 기방무용으로 계승변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백경우의 '살풀이'는 관객과 함께 호흡한 무대로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를 무대 가까이에서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예술



무용수가 춤을 춘다는 건 같은 주제라도 호흡도 다르고 손끝, 발끝, 몸놀림의 표현이 다르듯이 그만큼 예술적인 표현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이 온몸으로 말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같다. 낯선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표현방법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시 생각을 멈추고 그들의 춤의 세계에 귀 기울이면 무용수들의 호흡이 느껴지고 삶이 느껴지고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생각은 문화의 이해로 이어지며, 우리는 춤을 통해 하나가 된다. 그래서일까 필자는 춤을 통해 만나는 문화는 분명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난 아름다움으로 하나의 세계를 고스란히 이어주는 매개체라 믿고 있다.



강정선
- 대구무용협회 회장
- 대구예총 수석부회장



가을의 전설! 피아니스트 박종훈

글 김은주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사진 달서문화재단 제공

22

10월 7일 오후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린
박종훈의 [새드 피아노]는
한편의 아름다운 가을 수필을
피아노로 써내려갔다.

흰색 셔츠에 은발의 공기머리, 검은색 바지에
우아한 구두를 신고 무대에 등장한 박종훈.
패셔니스트 다운 면모와 함께 수려한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공연 틈틈이 마이크를
들고 연주곡과 작곡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
려 주는 중저음의 목소리는 귓가에 편안하게
와 닿았다.



박종훈, 그는 영락없는 피아니스트였다. 이탈리아에서 강의와
연주를 마치고 공연 전날 귀국해, 대구에 오자마자 연습부터
했다. 피아노와 하나가 되려는 듯 여독도 풀지 않은 채 박종훈은
꼬박 4시간을 피아노와 함께했다. 그의 노력과 실력은 그대로
청중에게 전해졌다. 그의 연주를 두고 낭만과 지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를 청중들은 붙여주었다.

낭만적이면서도 이지적인 박종훈의 공연

드라마에서보다 더 낭만적인 모습으로 연주했다.
첫 곡으로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연주하자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의 연주를 감상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꿈'이
지만 박종훈의 손끝에서 묻어나는 피아노 감성은 더욱 애잔하게
들려왔다.
피아니스트로서뿐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
주는 무대였다. 드라마나 광고의 배경음악에 많이 나오는 'White
love'(박종훈 작곡)를 연주할 때는 청중들의 반응도 한층 더 부드
러워졌다. 'Endless Love'에 이어 연주한 'Ruby's polka'는 박종
훈이 16년간이나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 루비를 위해 작곡한
음악으로 아주 경쾌한 멜로디를 들려주었다.

이어지는 쇼팽의 Balad 1번과 Bercuse, 슈베르트의 즉흥곡 등
가을에 어울리는 피아노곡은 청중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말았
다. '가을의 낭만과 깊어가는 고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의 무게, 추억과 회한들...'과 함께 우리 속에 잠재한 감성들이 피
아노 선율에 따라 무대 위에서 내려와 객석을 휘감고, 상상의 날
개는 각자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박종훈의 센스는 가을에



맞는 선곡으로 더욱 돋보였다. 행복한 시간에 화답하는
관객의 환호에 이어 그는 자신이 슈베르트를 생각하며
작곡한 슈베르티아나 2번을 거침없이 연주해나갔다.
그의 예술적 스펙트럼은 연주를 더해갈수록 더욱 다채
로운 빛을 발했다.

'지나간 사랑은... 모두 아프다'

박종훈이 쓴 책 [새드 피아노]에 나오는 구절이다.
쇼팽과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한 뒤 박종훈은 "[새드
피아노]에는 작곡자와 연주자들의 사랑이야기가 어떤
음악과 연결되고 또 어떻게 어울리는지, 편안하게 피
아노 곡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피
아노 곡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을 모아봤다"고 했다.

"공연 제목처럼 연주장을 슬프게 만들지는 않겠다"며
연주와 함께 웃음 가득한 이야기에 이어진 퀴즈의
답례로 그의 책을 관객들에게 선사했으며, 가을에 꼭
듣고 싶은 'Autumn Leaves(고엽)'는 박종훈 스타일의
재즈로 관객과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인 최초,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을 완주한 피아니스트답게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Paraphrase de concert sur Rigoletto S.434'를 연주할
때는 거침없는 그의 기교를 맘껏 뽐내었다. 마치 피아
노와 하나가 되듯이 그의 열정을 쏟아냈으며, 관객들
의 입가에는 만족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애! 앙코르~~~~
편안하고 차분한 진행으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우아
하고 멋진 피아노 선율을 들려준 박종훈에게 공연장
을 찾은 관객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계속 앙코
르를 외쳤다. 차분하게 '섬집아가기'를 즉흥곡으로 연주
하자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에게 박수를 전했다. 다시 한 번 더 '고엽'을 피아
니스트와 관객들이 한 마음으로 연주한 뒤 공연을 마
쳤다.

공연을 마쳐도 여전히 박종훈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
다. 팬 사인회에 이어 게시판에는 연주에 대한 감동과
즐거움이 가득 찬 관객들의 후기로 가득했다. 가을밤
깊은 연주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진솔한 스토리에 대한
감동의 글을 보내온 팬들의 열정 또한 연주자 못지않게
대단했다.

벌써부터 마음은 내년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다. 박종훈
과 그의 부인 치하루 아이자와가 함께 연주하는 '듀오
비비드'를 만날 날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Jazz Holic! ~~~'

표현의 자유! 성기문의 「All That Jazz!」

글 김은주 | 사진 달서문화재단 제공

24



재즈 홀릭의 순간들,
자유를 음악으로 표현하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밤(8월 5일) 펼쳐졌던 'All That Jazz'는 관객과 연주자가 모두 '자유'로 하나가 되는 무대였다. 자유와 절제의 재즈 선율은 한 잔의 청량한 모히또처럼 톡쏘기도 하고 부드러운 멜로디로 감싸기도 했다. (재)달서문화재단이 제시한 네 번째 스마일 토크콘서트인, '성기문의 All That Jazz'는 말 그대로 '재즈의 모든 것'을 성기문, 정태호, 강성민, 박재홍 4명의 재즈뮤지션들이 화음을 탐색하고 선율을 재창조하며 즉흥연주로 이어가는 보기 드문 공연이었다.

재즈 피아니스트 성기문, 아코디언과 드럼을 맡은 정태호, 베이스리스트 강성민, 보컬 박재홍이 함께 한 '올 댓 재즈'는 자유로운 재즈의 선율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무대로 펼쳐졌다. 스탠다드 재즈에서 보사노바, 블루스, 재즈로 편곡된 우리 가요까지 그야말로 다채로운 연주와 함께 재즈와 노래와 연결된 이야기까지 들려주는 아낌없는 무대였다.

'오버 더 레인보우' '문 리버'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서른 즈음에' '하드 타임' '그대 내 품에' 'Careless love' 'Georgia' '리베르 탱고' 등 10여 곡을 연주하면서, 입담 좋은 성기문과 박재홍이 번갈아가며 재즈와 연주자에 얽히고설킨 이야기들을 구수하게 엮어나갔다.

재즈 피아니스트 성기문은 "재즈는 자유 그 자체"라며 "재즈로 편곡된 가요는 연주자가 관객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이 간직한 지난 시절의 추억을 재즈로 되새기길 바라며, 더 불러 들려주는 연주자들의 즉흥연주는 색다른 스타일의 공연문화를 관객과 함께 자유롭게 즐기자 마련했다"고 했다.

성기문의 바람처럼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서른 즈음에'와 우리의 옛 노래를 재즈로 연주할 때,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재즈 연주가 진행될수록 연주자와 관객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상기된 채 연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평소 재즈를 즐겨 듣는다는 이아영 씨는 "자유와 재즈를 주제로 펼쳐진 토크콘서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성기문, 정태호, 강성민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리베르 탱고'의 화려한 음색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며, "동생과 함께 공연이 끝나는 것이 아쉬워 앵콜을 크게 외쳤다"고 전했다.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 되는 재즈를 선사한 '올 댓 재즈'는 멋진 연주와 함께 관객들의 참여 열기 또한 배가된 무대였다. 토크콘서트는 회를 거듭할수록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끈끈한 예술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Fun & Enjoy Jazz'

웅산의 편편편 재즈

글 이성욱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담당자
사진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26

'웅산의 편편편 재즈' 공연이
지난 10월 30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한국 최고의 재즈뮤지션들로 구성된
웅산밴드와 함께한 이번 공연은
'Fun & Enjoy Jazz'를 컨셉으로 편하
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즈 레퍼토
리를 선보였다. 아시아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라는 수식어답게 웅산은
공연 내내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화려한 무대를 즐기는 웅산은 이번
에도 역시 반짝거리는 황금색 의상
으로 첫 무대를 장식했다. 아일랜드
출신의 팝가수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를 첫 곡
으로 시작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스탠
다드 재즈곡 'Fly me to the moon'을
들려주며 공연의 첫 페이지를 열어나
갔다. 재즈가 어렵고 지루한 음악이
아니라는 기획의도를 확실히 인지도
켜주면서...



이후 탕고곡을 재즈로 편곡한 'Yo
Soy Maria', 줄리 런던의 'No moon at
all' 등 유명곡들을 웅산의 재즈 스타
일로 들려주었으며, 특히 가수 현미
의 히트곡인 '밤안개'는 웅산의 친절
한 설명과 함께 발라드, 스윙, 보사노
바, 펑크, 블루스 등 장르별 리듬으로
바뀌가며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관객
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나갔다.

점점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이어 락크
롭 도어즈의 'Light my fire'와 블루스
브라더스의 'Hey Bartender' 등 장
르를 넘나드는 웅산의 뛰어난 곡 해
석력과 출중한 보컬은 웅산밴드의
화려한 연주와 함께 그들만의 역량을
뽐어내는 무대를 보여줬다. 재즈피아
니스트 민경인과 성기문, 색소포니
스트 이인관, 드럼 박철우, 더블베이
스 황호규, 기타 박경호 등 세션들의

화려한 솔로 연주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고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또한 2부 공연 전 펼쳐진 민경인(피아노)과 성기문
(하몬드 오르간)의 즉흥 무대는 청중들의 눈과 귀를 음악 속으로 빠
져들게 만들었다.



2부 공연에서는 빌 위더스의 'Use me'부터 'Sailing' 'Song for you' 등 차분한 분위기의 재즈 곡들을 들려줘 웅산의 감성적인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를 만끽할 수 있었다. 공연 후반부로 넘어가며 이탈리아 칸초네 곡인 'Volare'와 웅산의 새 앨범 Temptation의 수록곡인 'Get up stand up'에선 급기야 모든 관객들이 일어서고야 말았다. 스탠딩으로 후렴부분을 따라 부르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면서 공연을 모두 함께 즐겼다. 이러한 열기를 이어 빠른 템포 재즈곡인 알 그린의 'Take me to the river' 역시 관객 전원 스탠딩으로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마무리 되었다. 열화와 같은 앵콜 요청 속에 웅산과 웅산밴드는 마지막 곡으로 웅산 3집 수록곡인 'Yesterday'를 부르며, 90분 동안의 신나는 재즈여행의 열기를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웅산의 보컬과 국내 최고의 재즈뮤지션들이 들려준 수준 높은 연주는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는 무대로 관객과 연주자 모두 한마음으로 재즈에 몸을 맡기는 시간이었다.

실내악계의 어벤져스 '양상블 오푸스' 대구에 오다!

글 김은주 | 사진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양상블 오푸스'의 대구 첫 공연이 지난 11월 19일 저녁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려 낭만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ENSEMBLE OPUS



'로맨티시즘 슈만 앤 브람스'란 주제로 가을에 어울리는 깊이 있는 울림과 매력을 선사한 '양상블 오푸스'의 공연은 웃는얼굴아트센터 명아티스트 4번째 시리즈로 관객들에게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들려주고자 마련된 무대였다.

작곡가 류재준이 예술감독,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리더를 맡고 있는 '양상블 오푸스'의 이번 무대는 백주영(바이올린), 권혁주(바이올린), 이한나(비올라), 김민지(첼로), 피터 라울(피아노)이 참여해 그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양상블의 색채를 가득 담은 낭만의 음악을 선사했다.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메르헨 빌더 작품 113번'(R. Schumann 'Märchenbilder for Viola and Piano Op.113')을 시작으로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제1번 B장조 작품 8번'(J. Brahms 'Piano Trio No.1 B Major Op.8')과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b장조 작품 47번'(R. Schumann 'Piano Quartet in E flat Major Op.47') 전곡 등 낭만의 정점에서 작곡된 실내악곡을 안정되고 깊이 있는 연주로 선보여 청중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말았다.

이번 연주의 백미는 권혁주, 이한나, 김민지, 피터 라울이 들려준 슈만의 피아노 4중주 Op.47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로 청중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을 낭만과 함께 살며시 내려왔다.

양상블의 매력에 대해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는 "양상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실내악을 들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뜻을 모아 만든 양상블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쉽 없이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끊임 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보다 완벽한 연주 호흡으로 양상블을 이뤄갈 때 연주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양상블 오푸스'는...

류재준, 백주영, 송영훈, 김상진, 권혁주, 피터 라울 등 이름만 들어도 연주세계가 떠오를 만큼 정상급의 국내외 솔리스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음악 단체다. 고전에서부터 바로크와 근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최고의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매 공연마다 갈채를 받고 있다. 2010년 서울국제음악제, 정율성 국제음악제 등 권위 있는 국제음악제 초청연주를 시점으로, 2011년 프랑스 파블로 카잘스 음악제 초청 연주 이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으며, 2012년 서울 예술의 전당 공연 전석 매진 등 티켓 유료판매율 80%를 차지하는 등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양상블이다. 최근 양상블 오푸스는 프랑스 브르타뉴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공연(2015년 11월 6일~12일)을 펼쳤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



피아니스트 피터 라울

‘아트 & 북 페스티벌’

글 이정란 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담당자
사진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아트 & 북 페스티벌’은 센터 주변의 문화적 환경을 활용한
특별전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자 마련된 전시였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인근에 들어서는 대구경북출판인쇄정보밸리와 함께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구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트 & 북 페스티벌’은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 의미를 더하며, 출판·인쇄 문화의 복수성과 대중성 속에서 존재하고 표현되는 예술적 가치를 찾아내는데 의미를 둔 전시였다.



요즘 출판 인쇄의 흐름에서 대중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술작품으로써 가치가 있는 다양한 ‘아트 & 북 디자인’, 영화 및 포스터와 홍보 인쇄물, 기관 명칭 등에 활용되고 있는 ‘캘리그래피’, 출판과 관련된 에디션 개념의 ‘판화 연작’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관람객들을 위한 동판화를 제작하여 찍어볼 수 있는 기회와 캘리그래피 제작 과정을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즐거움도 함께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권기철, 박병철, 박철호, 임현우, 김계희, 김지선, 안을선, 이진이 작가들이 참여했다. 한글 고유의 멋을 담은 캘리그래피는 영화 ‘웰컴투 동막골’ 포스터의 캘리그래피 디자인으로 유명한 박병철 교수(대구예술대학)와 한국화가의 예술 감성이 묻어나는 서예를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며,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로고를 디자인한 권기철 작가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향수를 자아내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의 미를 보여주었다.

임현우 교수(계명대학교)는 책과 미술의 결합을 담아 ‘예술이 되는 책, 책이 되는 예술’을 디자인한 북 커버와 북 바인딩 작업을 섬세하고 감각적인 아트 북으로 보여주었다.

인쇄와 큰 차이가 없는 제작방식이지만, 회화의 특성을 간직한 판화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움직임을 주제로 했으며, 박철호 작가 및 김계희, 김지선, 안을선, 이진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인쇄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판화의 백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였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는 박병철 교수의 소장본인 희귀본 「뉴 디자인」(세계 최초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잡지)과 박철호 작가의 소장품인 렘브란트를 비롯한 동판 작가들의 실제 예칭작품을 담고 있는 백년 된 고서를 기꺼이 관람객을 위해 전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 간행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영인본」(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도 함께 전시하면서 인쇄문화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이 돋보이는 세계적인 출판, 인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의 의미를 더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은 삶을 기록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요한 도구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이미지 이전에 언어로 표현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소통이 있었다. 이렇듯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만큼 웃는얼굴아트센터 역시 전시를 통해 지역민의 삶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문화의 꽃을 피우며

글 권은정

32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매년 8월 한 달간 개최되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Edinburgh Festival Fringe)는 기네스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공연예술축제다. 2015년, 69회를 맞은 프린지는 313개 공연장에서 3,314개의 공연물이 50,459회 선보이며, 다시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였다. 코미디, 연극, 마임, 무용, 퍼포먼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이 한자리에 모여 벌이는 열정의 무대에 세계에서 모여든 관객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로얄 밀리터리 타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 재즈&블루스 페스티벌, 아트 페스티벌 등 갖가지 테마의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매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1,600만 명 여행객의 공이다. 이 중에서도 대중의 인기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축제가 바로 종합공연예술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이다. 매년 8월 한 달간 도시전역을 공연장으로 만드는 마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진행된 '코리안 시즌'에는 글로벌 문화기업 에이투비즈와 에든버러 최고의 극장 어셈블리의 공동기획 아래 각기 다른 장르의 한국공연 5팀이 선정됐다.

Edinburgh Festival Fringe





제주 큰 곳을 새롭게 해석해 한국적 사머니즘의 진수를 보여준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마로의 '이어도(LEODO : The Paradise)'는 영국 BBC 생방송 인기프로그램인 'The One Show'의 코리안 하이라이트에 방영되었으며, "10점 만점에 10점! 축제의 본질을 압축한 듯한 공연이다"라는 최고 평점과 함께 찬사를 받았다. 명품 퍼포먼스 뮤지컬 '카르마'로 전 세계 32개국에서 명성을 떨친 '더 패트론'의 코미디 매직 퍼포먼스 '로토(LOTTO : Karma of the Alchemist)'는 냉철한 비평으로 유명한 공연전문지 '더 스테이지(The Stage)'로부터 "굉장한 규모의 스펙타클과 일루션이 함께 한다. 한 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배우들의 에너지와 무대적 새로운 시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호평을 받았다.

가슴 벅찬 북소리와 열정적인 무용수들의 황홀한 한국무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연'팀의 '판(PAN)'을 관람한 '브리티시 씨어터 가이드(British Theatre Guide)'는 "관객들은 처음부터 스펙터클한 광경과 춤, 노래에 압도당한다. 이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큰 한 조각을 맛본다"라는 평과 함께 찬사를 보냈다. 세계적인 안무가 이인수가 이끄는 'EDx2 무용단'의 '원 파인 데이(One Fine Day)' 역시 '더 스테이지'로부터 "안무가는 공연을 쥐락펴락 할 줄 안다. 놀라운 공연이다"라는 리뷰를 받았으며, 국내외 유수의 연극계에서 작품상, 연출상, 연기상을 휩쓸며 예술성을 높이 평가 받은 극단 하땅세의 토종 가족극 '붓바람(Brush)'은 '브로드웨이 베이비(Broadway Baby)'로부터 "사랑스럽고 상상력 가득한 공연이다"라는 리뷰와 함께 최고 평점인 별 5개를 받았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성공의 원동력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축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엄청난 관광수입을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지역적 자부심과 국제적으로 지역의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페스티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먼저 역사적 자원의 바탕 위에, 199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구도시의 중심 '로열마일' 등 지역의 주요 명소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100%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성공요소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 달간의 긴 축제기간은 관광객들을 장기간 지역에 체류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축제조직은 관광객 유치 이전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중시하고 있었으며, 매년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축제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뒤 별도의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또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경우, 전체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운다는 점에서 대체로 국내 축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분야의 주체들이 축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기간을 충분히 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 같은 공감대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한 전략들이, 그야말로 70년 가까운 불패신화를 만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섬유산업의 쇠퇴와 밀라노프로젝트의 실패 이후, 여러 방면으로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 부흥을 도모하며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를 생각하다 '빛의 도시'로 새롭게 부흥한 프랑스의 '리옹'이 떠올랐다. 견직물과 인쇄업의 쇠퇴로 도시 발전의 정체를 겪어오던 리옹은 차기 산업으로 '빛'을 선택했다. 1999년 도시조명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빛 축제'는 인구 오십만의 도시에 매년 4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게 했다.



유럽전역에 흑사병이 돌던 14세기 초, 시민들이 흑사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렸기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믿는 리옹의 시민들은 감사의 뜻으로 푸르비에르 언덕에 성모 마리아상을 세웠고, 매년 12월 8일 마리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창가에 초를 밝혀놓게 되었다. 이것이 리옹 '빛 축제'의 기원이다. 시민들 스스로 전통의식을 계승하며 감동적인 스토리와 연계된 축제는 이제 문화산업으로서 '빛'의 가능성과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도심 곳곳에 펼쳐놓고 즐기게 됐다.

61만 명 구민의 전국 3대 기초 자치구로 꼽히는 달서구는 프랑스 리옹과 닮았다. 이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달서구만의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달서구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가운데, 구민들이 주인의식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를 진심으로 즐기게 될 때, 지역축제는 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며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권은정

- 현재 ㈜에이투비즈 예술감독 / 전, '카르마' 전용관 극장장
- 2015 에든버러 페스티벌 '코리안 시즌' 예술감독
- 2014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 특집 행사 추진단 단장
- 20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난타', '점프', '카르마', '비밥', '하이킥', 국수호의 '코리안 드림' '카타클로', '유로비트' 등 기획/제작/운영 및 해외 프로모션

#organ story

오르간 이야기

2015 여름, 잘츠부르크에서 담양까지

글 · 자료 이상경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여름축제(Summer Festival)를 앞두고 필자는 예년과는 다르게 우물쭈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가 예산문제였다. 2014년에 대구문화재단의 기초예술부분에서 집중지원 기획사업으로 선정되고 그해 연말에 생각해 보니 후배 기획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음악, 무용, 연극, 미술영역에서 또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기가 만무하겠다는 단순한 판단으로 아예 올해는 지원 사업을 건너뛰고 보니 축제를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예산도 없이 대표가 쫓아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면에 잠겨있는 깊은 소리가 문득문득 나를 깨웠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 그래, 한 해도 안 거르고 십년은 가야 사람들이 야! 우리 지역에도 이런 축제를 하고 있지...라고 기억이라도 할 게 아닌가!'

마음이 아침저녁으로 결론을 뒤집으며 요동을 하고 있을 무렵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메르스 사태'였다. 조마조마 사태를 살피면서 우선 포스터부터 인쇄하면서, 예년에 비해 꽤 소극적인 템포로 준비하고 있을 무렵 대구에서도 확진환자가 생겼고, 그나마 선정되어 있던 해피티켓까지 무산되고 나니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래서인지 한편으론 가볍게 비엔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년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잘츠부르크 돔 연주회, 오르가니스트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기회였다. 올 여름, 답기는 얼마나 더웠는가. 혹자는 이 더위를 "살인적 더위"라고 까지 했다. 향하고 있는 유럽도 다르지 않으며 각오하고 오라며 현지에서도 엄포를 놓았다.

잘츠부르크 돔에 올려 퍼진 "Arirang over Mozart"

잘츠부르크 여름축제, 브레겐즈 그리고 루체른 여름축제는 세계3대 음악축제라고 불린다. 특별히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잘츠부르크 음악축제는 공간울림이 지난 6년 동안 개척하고 시행하며 세워온 마을축제의 모델이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잘츠부르크 음악축제 기간 동안에는 잘츠부르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잘츠돔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회(Dommusik Salzburg-Orgelkonzerte)를 함께 열고 있다. 올해도 5번의 즉흥 오르간 연주회와 10회의 정오 오르간 연주회가 열렸으며,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초청된 연주자들이 함께 참가했다. 비엔나에 내려 이틀을 머문 후 일요일 오후에 기차로 잘츠부르크에 도착했다.



이번 연주회에 필자를 초대해주신 돔 오르가니스트인 Heribert Metzger 교수님(모차르테움 국립예술대학교)은 미사를 마치고 곧장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와 주셨고 픽업해서 옛 수도원이었던 정갈한 숙소로 안내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방만 내동댕이 쳐놓고 시작된 오후의 첫 리허설부터 내내 곁에서 함께 해 주셨다. 심지어는 연주 당일 레지스터(오르간 연주 시 음색을 바꾸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솔로악기의 반주자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를 자청하시어 오른쪽엔 Metzger 교수님이 왼쪽엔 잘츠부르크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 중인 후배 사라가 맡아 주어 나는 정말 고향에 온 것처럼 맘 편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리허설은 여느 때와 달리 쉽지가 않았다. 늘 오픈되어 있는 잘츠부르크 돔인데다 가장 관광객이 많은 축제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연주 당일 아침 마지막 리허설, 마침 그때 홍신주 선생이 특별히 이번 연주를 위해 헌정해준 'Arirang over Mozart'를 치고 있는데 누군가(아마 한국 관광객이었으리라) 함께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것이 내게 들려왔다. 이국에서 노래로

나누며 하나되는 묘한 느낌이 전해져 가슴이 후둑후둑해졌다.

정오 오르간 연주회(Orgel zu Mittag Konzerte)는 12시, 정오에 종을 치면 12시 5분부터 돔의 오르간으로 연주되는데 이 돔에는 자그만치 6개의 크고 작은 오르간이 함께 동, 서, 남, 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과 시대에 맞는 오르간을 찾아 이동하며 한 공간에서 여러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리허설 때 그 많은 관광객들을 공연시간이 다가오자 다 내보내고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며 다시 티켓팅한 사람들만 돔 안으로 입장시킨다고 했다. 순간 '누가 아무도 모르는 이 무명의 이국 오르가니스트의 공연에 티켓까지 끊어 다시 입장하겠는가?'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주가 다 끝나고 뒤돌아서 관객을 향했을 때 나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중에야 들었지만 200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티켓을 구매해서 입장했다고 했다. 게다가 기립박수까지 해준 관객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잘츠부르크 돔에서의 연주는 그들이 누려온 보편적인 일상의 문화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와 연주로, 강의로, 공연 기획으로,

바쁘게 다니면서도 왜 여전히 유럽의 예배당에서의 오르간 소리를 잊지 못할까? 그것은 건축과 악기가 완벽하게 만나 음악이 되는 '깊은 숨소리', 바로 그 '울림'이 주는 감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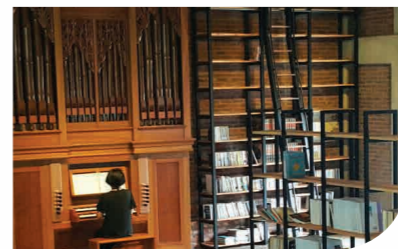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필자를 설레게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전라남도 담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세계 최초 대나무 박람회(9월 17일~10월 31일) 기간 중 오르간 연주자를 공모한다는 소식도 함께...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이라니?!

궁금해서 단숨에 연주자 공모에 지원을 했고 필자의 연주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8일로 정해졌다. 한국에 살면서도 처음 만난 담양은 예상-너무 미안하지만 굉장히 시골일 줄 알았던 나의 완전 무지-을 뒤엎고 아주 단아하고 기품 있는 문화예술마을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은 예전의 미곡창고를 정부로부터 12억을 지원받아 예쁜 이름 '담빛예술창고'로 변신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천정이 아주 높아 울림도 근사한 이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북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창고의 중심에 파이프오르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이즈가 아담하게 크지도 않았고, 게다가 페달은 독립된 스탱 없이 손건반에서 빌려 쓰는 형태라 큰 곡을 연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공간에 어울리는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은 필리핀에서 제작되었고, 설치와 관리는 우리나라 홍성훈 마이스터가 맡고 있다고 했다. 소리는 하나 하나 독립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대금 같은 소리를 내며, 맑고 단아하고 순하며 나머지 울림은 높은 공간으로 흩어지며 아름다웠다. 필자가 맡은 오르간 연주를 마치며 '다음엔 우리의 천년 소리인 대금과의 만남(우리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만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모색하는 앙상블)을 통해 다시 한 번 대나무 파이프오르간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대나무가 아이콘인 이 마을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를 온 마을이 다 나서서 45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열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런 일을 기획하는 실무담당자와의 만남에서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게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담양은 대구 수성구 하나보다도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앞으로 100개가 넘는 갤러리를 세우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서 무척 놀랐다. 이유를 물으니 그 정도는 돼야 담양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하루 만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 마을이 '함께 살기'에 온 지혜를 모으는 듯 했다. 광주와 같은 대도시의 주변마을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미 그들만의 문화예술콘텐츠로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다.

필자는 지금 지난 여름, 어정쩡하게 밀쳐 두었던 기획서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리고는 '어름축제'를, '클래식으로 노는 음악축제'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섬머페스티벌'이란 타이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한-스페인 축제 '대구, 스페인 광장에 서다'를 12월 1일~12월 13일까지 무대에 올리고자 다시 기획했다. 공간울림이 펼치는 축제의 특징을 꼽으라면 오르가니스트가 기획하는 축제라 당연히 파이프오르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작 멋진 울림의 소리를 지닌 거대한 파이프오르간도 우리 지역 실정에서는 듣기 힘든 소외된 악기로 여겨지고 있다. 문득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도 학업으로만 내몰리면서 오히려 문화소외계층이 될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일곱 살 이하 어린이들의 출입은 제한되기 일쑤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축제와 오르간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문제는 실용과 경제가 우선하는 시대 속에 가지적이지거나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주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공통분모일지도 모르겠다.



이상경

- 現. 전문예술단체 공간울림 대표 / 호 텔 인터볼고 성임 오르가니스트
- 現. 영남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외래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오르간전공) 석사
- Nederland Utrecht Conservatory(오르간전공) Diplom
- 1994 전국 최초 하우스콘서트 시작 / 2003 하우스콘서트를 공간울림 개관
- Summer Festival in Daegu 기획 및 개최(2009~2014)
- 2013 한국음악협회 2012 한국음악상 공로상
- 2014 제1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올해의 여성경영인 은상
- 2015 오스트리아 Salzburg Festival 초청 오르간 독주회
-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정기연주회



유럽미술기행

夭折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세계

글 · 사진 김영동

夭折을 주제로 한
바덴-바덴 미술관의 전시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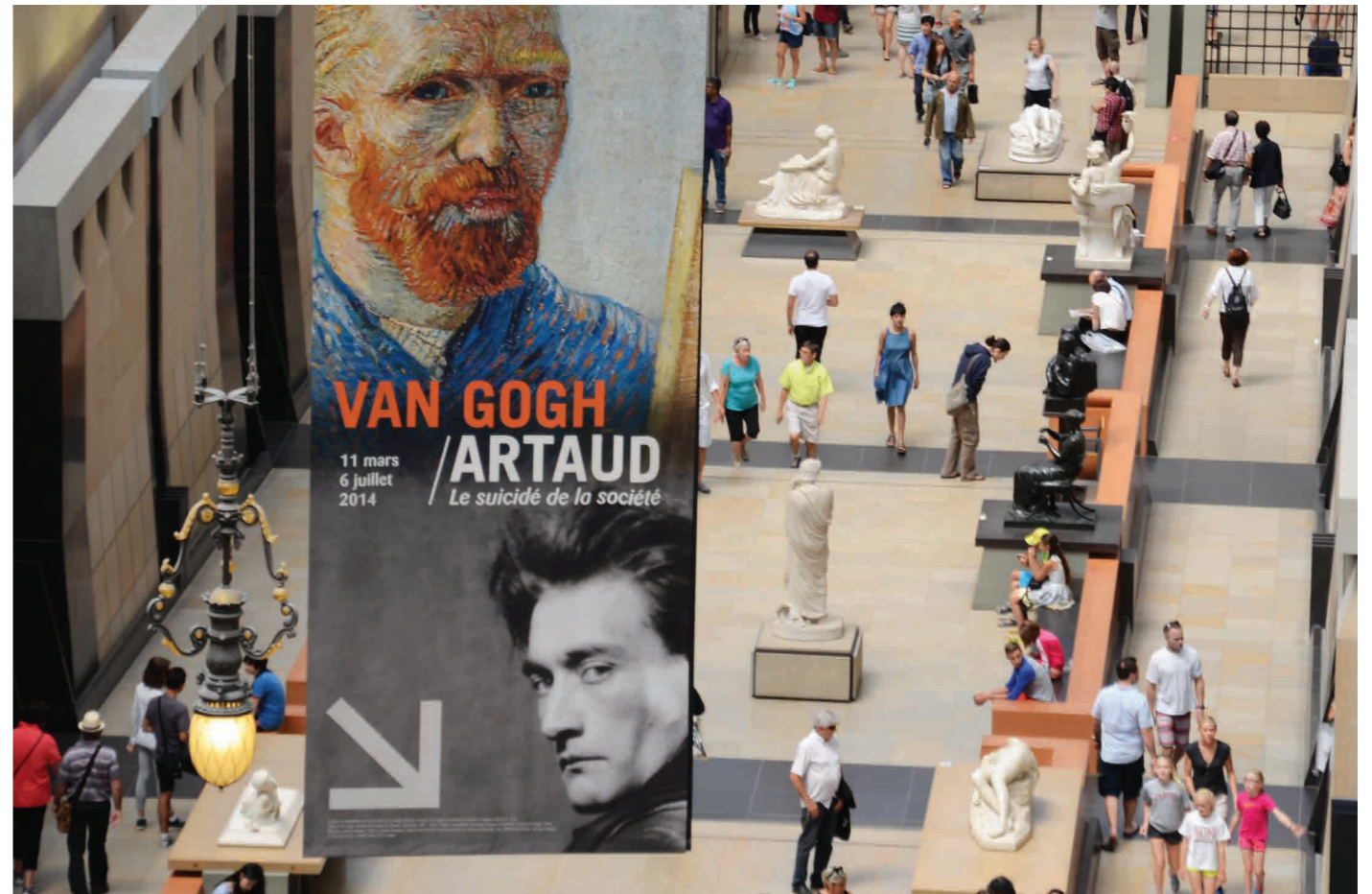


바덴-바덴 국립미술관의 '夭折 그 후'
〈Staatliche Kunsthalle, Baden-Baden / After an Early Death〉
(2015. 3. 21 - 6. 21)

“생존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주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작품이 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여부에도 관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작품과 사상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죽은 작가들에겐 사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획된 한 전시회가 있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독일의 바덴-바덴 국립미술관이 '夭折 그 후'〈After an Early Death〉(2015. 3. 21 - 6. 21)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열었는데 어떻게 요절 작가의 작품이 오랫동안 그 존재를 지속하며 성공 스토리를 탄생시키는지 여러 경우의 예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결론은 작품 외적인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여 요절 작가의 작품세계가 계속적으로 존재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인데, 특히 갑작스런 이른 죽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애석함과 그밖에 외부의 힘들이 작동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여러 종류의 해석을 만들어낸다. 바덴-바덴 국립미술관에서 열리는 '夭折 그 후' 전시회는 지난 백 년 동안 예술가의 작품에 적용된 사후 책략들의 스펙트럼으로부터 많은 예외의 경우들을 제시하려 한 전시회였다.

시련 속에 짧은 생을 보낸 예술가의 현대적인 한 전형이 빈센트 반 고흐다. 그의 생전에 거의 한 점도 팔지 못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종종 반복되는 사실이다. 그는 1890년 7월에 자기 가슴에 권총을 발사해 3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는데 사후 그의 작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한 바람에 그의 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예술가의 이상적인 신화로서 비쳐지게 되었다. 이 전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여름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유사한 맥락에서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있었다.



Van Gogh, Artaud, The Man Suicided by Society, 2014



오르세미술관의 '고흐와 아르토' 전시장 내.
작품 감상에 몰두하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 & 전시장 내 풍경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의 '반 고흐' 전,
〈Van Gogh / Artaud. The Man Suicided by
Society〉(2014. 3. 11 - 7. 6)

마침 지난해 여름에 정신적 발작을 힘겹게 견디다 끝내 자살한 빈센트 반 고흐를 기리는 기획전이

오르세미술관에서 있었다. 그런데 이 전시는 「Van Gogh, the Man Suicided by Society」라는 그의 사후 첫 전기를 쓴 프랑스의 극작가 앙토냉 아르토(Antoin Artaud : 1896-1948)와 나란히 조명하는 전시였다. '사회에 의한 자살'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이 제목은 당시 왜 고흐와 같은 작가가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아르토는 연극이론에 관한 저술가이면서 또한 일러스트 삽화가이기도 했는데 고흐의 죽음을 사회가 강요한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듯했다. 그 자신도 정신병원에 머문 경험이 있으며 죽음 또한 고흐와 유사한 고통 속에서 맞았으리라 짐작되는 인물이다.

출품된 작품들은 고흐가 최후의 시기에 그렸던 주옥같이 빛나는 작품들 다수를 소개하고 있었다. 아르토는 고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 광휘에 찬 작품들이 어떻게 관객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서술하려 했다고 한다. 그는 고흐가 "견딜 수 없는 진실"을 말하려 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관대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으려 했으며 그의 자살 이유를 정신적으로 의미심장하게 해석하고 있다. ("Van Gogh therefore committed suicide because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as a whole could no longer tolerate him.")

이 전시는 아르토가 1947년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열렸던 고흐의 전시를 보고 쓴 에세이와 작가 그 자신이 시인에 가까웠던 고흐가 남긴 글과 그 두 사람의 그림들로 구성된 새로운 접근법의 기획전이었다.



'고흐와 아르토' 전시에 출품된 고흐의 풍경화.
죽기 직전 마지막 해인 1890년에 제작한 작품 중 하나



Vincent van Gogh(1853-1890),
Wheat Field with Cornflowers, Auvers-sur-Oise,
July 1890, Oil on canvas, 60x81cm

런던 덜위치미술관의
'라빌리우스(Eric Ravilious)' 회고전
(2015. 4. 1 - 8. 31)

에릭 라빌리우스(1903-42)는 20세기 중엽 영국에서 활동한 저명한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이었다. 특히 웨지우드의 전통 도자양식 그릇에 그린 장식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한 당대의 가장 빼어난 수채화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에 런던 교외에 자리 잡은 덜위치 미술관에서 그의 수채화 작품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는데 사후에 개최된 거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기획전시라 한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작가이지만 일찍이 요절한 영국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곳 유작전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다. 화풍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채 약간은 낭만주의적이기도 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감상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초현실주의적인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풍경화나 실내 장면 등 장인물 묘사가 없는 것이 한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1930-40년 사이 영국인들의 생활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전원 풍경을 여행자의 시각으로 담아낸 부분들은 현지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Eric Ravilious, The Westbury Horse, 1939



Dulwich Picture Gallery
에서 열린 Ravilious
특별전

런던 덜위치미술관 전경

그는 짧은 생애 동안 놀라울 정도의 다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대부분 2차세계대전 발발 시점 전후에 걸쳐있다. 로열아카데미서 미술을 전공한 그는 헨리무어와 같은 작가들과 동료였으며 주로 장식미술에 종사하면서 판화 및 일러스트를 제작했으나 그가 전시했던 것은 회화작업이었다고 한다. 특별히 수채화에 관심을 가져 많은 풍경화를 남겼으며 영국 수채화의 부활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차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라빌리우스는 1939년 말 영국 최초의 공식 전쟁화가의 한 사람으로 해군에 입대했으며 거기서도 "흐르는 시간의 덧없는 기록을 붙잡고 보존하는" 자기 나름의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아일랜드에 위치한 레이카비크 공군기지에 파견된 뒤 사라진 정찰기를 수색하러 나간 비행기에 동승했다가 기체와 함께 그도 실종되고 말았다.

전시에 나온 80장이 넘는 수채화들은 1920년대 중반에서부터 단지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1942년까지의 작품들인데 그 가운데 특히 <기차의 풍경>과 <웨스트베리의 말>과 같은 작품들은 생기 넘치는 신선한 표현들이 감각에 와 닿아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Eric Ravilious, Tea at Furlongs, 1939



Eric Ravilious, Train Landscape, 1940



Eric Ravilious, Hurricane in Flight, c. 1942

비엔나 레오폴드미술관 '엘리 뉴질 - 실레와 함께 한 그녀의 삶'
<WALLY NEUZIL, Her Life with Egon Schiele>(2015. 2. 27 - 9. 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레오폴드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에곤 실레 Egon Schiele(1890-1918)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미술관의 이름이 된 루돌프 레오폴드 박사의 기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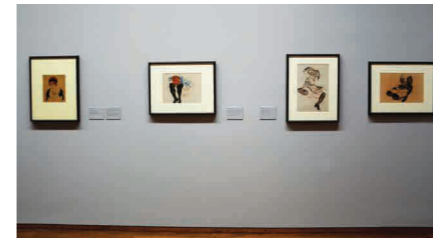
비엔나 레오폴드미술관 (Leopold Museum)에서 열린 엘리 뉴질과 에곤 실레를 주제로 한 특별전 'WALLY NEUZIL, Her Life with Egon Schiele', 2015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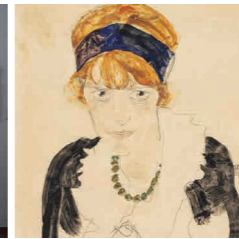
Egon Schiele(1890-1918)와 Walburga("Wally") Neuzil(1894-1917), Leopold Museum

기초해서 에곤 실레의 초기작에서부터 그의 갑작스런 죽음의 직전까지 전 시기에 이르는 42점의 유화와 187점의 종이에 그린 회화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올해 여름 이 미술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엘리 뉴질-에곤 실레와 그녀의 삶> 'WALLY NEUZIL, Her Life with Egon Schiele'은 한때 에곤 실레의 중요한 모델이었으며 친구이자 연인 사이였던 엘리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전시회이다.

'Wally'는 Walburga Neuzil(1894-1917)이라는 여성의 애칭으로 1911년부터 1915년 사이 에곤 실레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지냈다. 1915년 에곤 실레는 다른 여성 에디스(Edith Harms)와의 급작스러운 결혼 결정으로 엘리와 헤어졌지만 그들의 특별했던 관계는 다수의 초상화 작품들로 남아 있어 에곤 실레의 짧은 생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화제에 오르는 인물이다.



Egon Schiele의 초기(1912년경) 그래픽적인 작품들



Egon Schiele, Wally, 1912(왼쪽 사진에서 첫 번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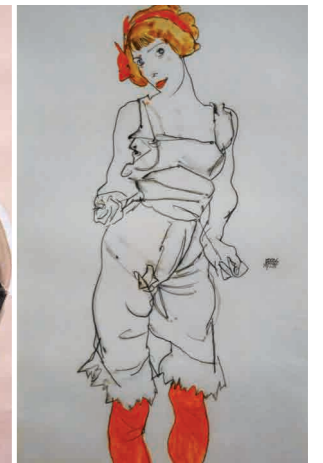
Egon Schiele, Two Naked Girls with Black Stockings, 1910



Sitting young woman, half nude with blue skirt,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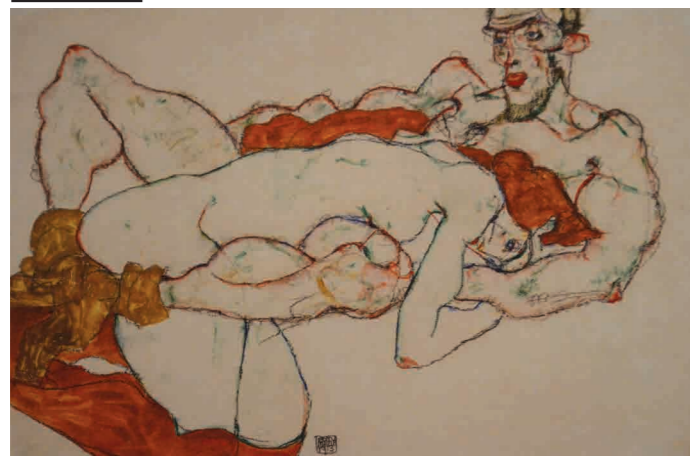
에곤 실레의 초상화 1911년 작. 이 무렵 초상화들에서부터 모델들이 거리에서 만난 소녀들에서 점차 '엘리'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Woman in Underclothes (Wally Neuzil), 1913

두 사람이 처음 만난 1911년 즈음은 에곤 실레가 빈 분리파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영향 아래 주로 거리에서 만난 소녀들을 모델로 드로잉과 그래픽적인 인물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초기 습작기 유희작품으로부터 다소 장식적인 경향의 예리하면서도 독특한 선묘의 개성 있는 세계가 도출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것이 에곤 실레의 전형적인 양식을 개발시킨 계기로서 엘리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꼽는 이유다. 그래서 이 전시는 미술사적으로 결정적인 양식을 구축하는데 엘리라는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써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 전시는 웰리가 에곤 실레와 헤어진 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의 삶이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계발을 통한 본분을 되찾고 훌륭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했다고 전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결코 불행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시사한다. 당시 주위로부터 받은 관습적 시선과 달리 각자의 성장에 기여한 매우 신뢰할만한 사랑을 한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다. 에곤 실레 또한 이후 자신의 작품 양식이 한층 심오해진 주제와 복잡해진 구성으로 원숙한 경지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진짜 비극은 그 후 얼마가지 않아 웰리가 자원봉사 하던 군 병원에서 성홍열로 겨우 23세의 나이에 죽은 것과 에곤 실레 역시 그의 아내가 그 한 해 뒤인 1918년에 또 서로 3일간의 간격으로 그 자신마저 당시 유럽을 덮친 스페인 독감으로 28세를 일기로 요절한다는 사실에 있다.



Lovers, 1913



Three Standing Women(Fragment), 1918(Unfinished)

28세로 요절한 작가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를 대표하는 한 작가로 꼽히고 있는 지금 에곤 실레의 작품들은 비엔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호가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비엔나의 수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 레오폴드 미술관을 찾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에곤 실레와 그의 스승 같은 존재인 구스타프 클림트 등 소위 비엔나 분리파 화가들의 컬렉션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와 병행해서 영국작가 트레이시 에민 Tracey Emin(born in 1963)의 특별전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Where I Want to Go>(2015. 4. 24 - 9. 14) 라는 제목으로 에곤 실레를 기리며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 받은 자신의 드로잉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Mother and Child, 1912



1907-8년 사이 그린 에곤 실레의 초기 습작기에 해당하는 작품



김영동

-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02년, 미학 미술사 전공)
- 매일신문사 근무(1983~1998)
-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사와 미술이론 강의
-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2014. 10~12) 매일신문 연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 진행
- 저서 「근대의 아름다움」 (한티재, 2011)



50

Jazz & Wine

재즈와 와인

글 · 자료 오종대

나는 늘 술 좀 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다.
 커다란 덩치에 덩수룩한 수염까지 있고
 더구나 재즈를, 그것도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라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난 술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지는
 알콜 분해효소 부족체질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하지만 유학시절 네덜란드의 유명한
 하우다(Gouda)치즈를 넣은 호밀빵과
 동네 슈퍼에 준비하던 와인 한잔씩을 마시던 것을 시작으로
 이젠 집에 레드와인 한 병 즙은 늘 챙겨 놓는 실력이 됐다.

얼마 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윗집 부부의
 (참고로 그 집은 집에 와인셀러까지 갖추고
 와인을 박스로 구매하는 애호가이기도)
 저녁초대를 받았는데 마침 초대 손님 중
 와인감별사로 와인 수입을 하시는 분과 함께 음식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덕분에 평소에 구경하기 힘든 맛있는 와인과 함께
 와인의 종류, 특징, 즐기는 방법까지
 재미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어느새 얼굴이 정말 레드와인처럼
 붉어지는 줄도 모르고 와인과 재즈 얘기를 나눴더랬다.

재즈하면 다들 웬지 와인을 한 잔 하며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정말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 그건 정말 재즈랑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정리해 봤다.

Jazz & Wine

재즈와 와인의 공통점



01 같은 와인이라도 맛이 다르다

같은 품종에 같은 라벨, 같은 해에 생산된 와인이라도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숙성한 통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병에서 나온 와인도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에 따라 맛과 향이 변해간다.
 재즈 연주도 그렇다. 같은 연주가 없다. 같은 곡, 같은 편곡이라도 심지어 같은 멤버로 구성된 밴드의 연주라도 연주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청중에 따라 전혀 다른 연주가 된다. 왜냐하면 재즈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즉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은 아니고 음악의 어휘들과 문법 그리고 다양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곡의 주제에 따라 즉흥적으로 펼쳐가는, 비유하자면 토크쇼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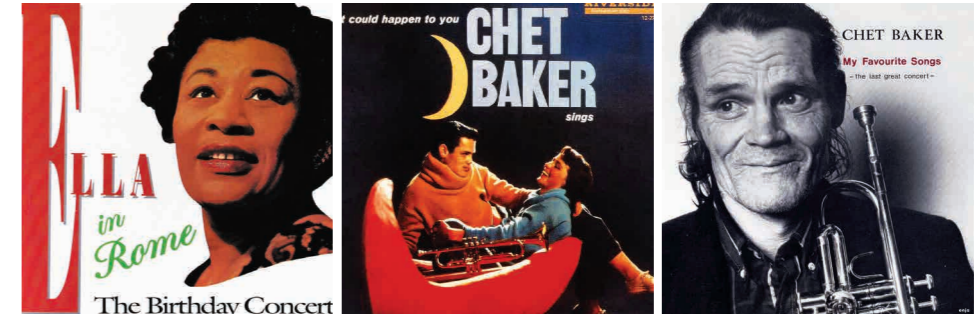
그 날의 분위기와 또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의 기발한 화두, 그리고 그날따라 유난히 뜨거운 관객의 반응에 따라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순간의 음악으로 탄생하는 것이 재즈다.



02 가장 좋은 와인은 나와 잘 맞는 와인이다

물론 비싸고 고급으로 알려진 와인이 좋은 와인일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 먹고 있는 음식, 날씨나 기분 같은 지금의 상황에 따라 제일 잘 어울리는 와인이 좋은 와인일 것이다. 평소 단맛이 나는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엄청 배부르게 식사를 한 후 마시는 달콤한 아이스와인은 딱 정답일 때도 있지 않은가?

재즈도 그렇다. 평소 발라드나 우울한 음악들을 좋아하더라도 가을 햇살 반짝이는 재즈페스티벌에서라면 누구나 신나는 음악에 환호성이 터지지 않겠는가? 또 아무리 평론가가 극찬하고 앨범의 별이 다섯 개여도 정작 공연을 떠나며 차안에서 챙기는 음반은 Ella Fitzgerald나 Chet Baker가 아니던가! 내 귀에 다가오는 음악과 내 입맛에 맞는 와인, 뭐 이걸 두 말하면 잔소리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덧붙였던 얘기가 떠올랐다.

“와인이나 재즈나 잘 모르면 사기치기 딱 좋다”는 것이다.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레스토랑이나 와인샵에서(물론 정직하게 다들 하시겠지만) 잘 모르고 무조건 추천해 주는 것만 사게 되는데 가끔은 터무니없이 비싼데 맛은 별로라 구시렁대던 기억이 있다.

재즈도 연주자의 유명세나 화려한 광고를 듣고 연주회에 가거나 음반을 샀다가 실망할 때가 있다. 가끔은 아직 그 와인(그 재즈)의 깊은 맛을 즐길 줄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주 가끔은 진짜 별루이거나 맛이 간 와인(감흥 없는 연주)일 수도 있으리라.

우리는 살면서 와인을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깟 와인 모른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맛있는 와인 한 병쯤은 집에 놔두고 무언가 즐거운 날,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날, 상쾌한 코르크 열리는 소리와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더 향기로우지 않을까? 그것이 꼭 비싼 고급 와인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공연을 마치고 행복한 표정의 관객들에게 건네는 멘트도 이런 얘기들이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깟 재즈 모른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즐기셨던 것처럼 나만의 향기로운 음악,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음악,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재즈 하나쯤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중대

- 현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과 교수
-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움 재즈 / 경희대 아트퓨전 대학원 졸업
- 2007, 2008, 2010년 Jazz People Reader's Poll Best Jazz Drummer



시베리아를 가로지른 러시아 한인들의 기상

글 박정곤

54

한반도에 터를 두고 살아 온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훌륭한 문화를 꽃피워 대외적인 교류를 통해 널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과 중국을 거쳐 남과 서로 퍼져나갔으며, 오늘날에는 시베리아 대륙을 넘어 널리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극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생명이 마른 황무지를 개척하여 밭을 일구어내고, 풀 한포기 없는 척박한 땅을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낸 한인들의 기상과 근면을 이미 오래전부터 더없이 높이 사 왔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크고 작은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남과 북으로 갈리는 민족분단의 아픔을 경험하며 굴곡진 역사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올해를 포함한 근 몇 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진 시간들이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실례로 우리가 올해 맞이한 광복 70주년과 발맞추어 러시아는 2차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로의 자발적 한인 이주 150주년, 한-러 수호통상조약 140주년이라는 역사의 기록을 함께 새기기도 하였다. 벌써 한 해를 훌쩍 넘긴 일이긴 하지만 2014년 8월에는 지상을 통해 민간인이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다. 휴전 이후 남과 북, 양쪽 땅을 일반인이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통과한 일은 유사 이래 처음이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오토렐리 2014, 모스크바-평양-서울”에 참가한 재러시아 한인동포, 이른바 <카레이스키>들과 몇몇의 다국적 참가자들이었다.



약 30여 명에 달하는 오토렐리 대원들은 옛 소련 시절 강제 이주로 고통 받았던 러시아 한인들의 강제 이주 루트와 동일한 이동로를 따라, 장장 한달 반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여 서울에 다다랐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던 당시 압제와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나간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자하는 의도에서 이처럼 오토 렐리 이동로를 구성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모스크바에서 곧장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지아를 지나고, 다시 험준한 알타이를 넘어 바이칼로 들어오는 장장 1만 5천 500미터에 달하는 대여정이 되어버렸다. 기나긴 거리만큼이나 이동하는 과정이야 몇 갑절 더 힘들겠지만 그들이 이룩한 의미만큼은 비할 바 없이 크다 하겠다.

러시아 동포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순수 러시아인들과 미국 국적 동포, 독일인, 그리고 한국의 취재진이 함께 밭을 밟은 오토렐리 원정대는 150년 전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던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자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과 유라시아의 평화와 기원한다는 거룩한 뜻을 담고 있다. 또 국제 오토렐리라는 명성에 걸맞게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남북의 협조를 모두 받아 명실공히 동아시아 우호를 증진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나긴 여정에 참가했던 필자는 지난 1년의 감회를 회상하며 당시에 관한 몇몇의 기록을 전하고자 한다.



〈오토렐리〉의 기나긴 여정, 그 첫발을 디디다



역새 셋푸른 앞줄기에 시베리아의 아침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 흙먼지 얼룩 아래 굳게 닫힌 지프차의 문을 열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마냥 한 사람씩 기지개를 펴며 들판을 향한다. 7월의 불볕더위가 낮을 뜨겁게 달궜던 2014년 여름이었음에도 아침의 찬 기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 몸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밤늦게 도착한 알타이 산맥의 능선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야전에서의 취침을 두렵게 하였지만 밝은 햇살 가득한 대자연 속 아침의 영롱함은 더없이 상쾌했다. 이렇게 자연을 벗 삼아 잠을 청한 것도 벌써 몇 주째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터. 그럼에도 여전히 도시인의 연약함은 시베리아 거점도시들을 지날 때마다 문명의 이기가 던지는 편리와 달콤한 유혹에 망설임을 금치 못한다.

〈오토렐리 2014〉 모스크바-평양-서울.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일들이 이제 현실화됨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7일 모스크바를 출발하며 그 역사적 첫걸음을 디뎠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지아, 그리고 시베리아의 한 복판을 가로질러 동쪽 끝을 향하고 있다. 눈앞에 펼쳐진 바이칼에서 불어오는 훈풍은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투명 옥빛으로 가득 채웠고, 이따금 맞은편 차선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들이 경적을 울리며 응원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마다 미소를 머금고 본능에 가깝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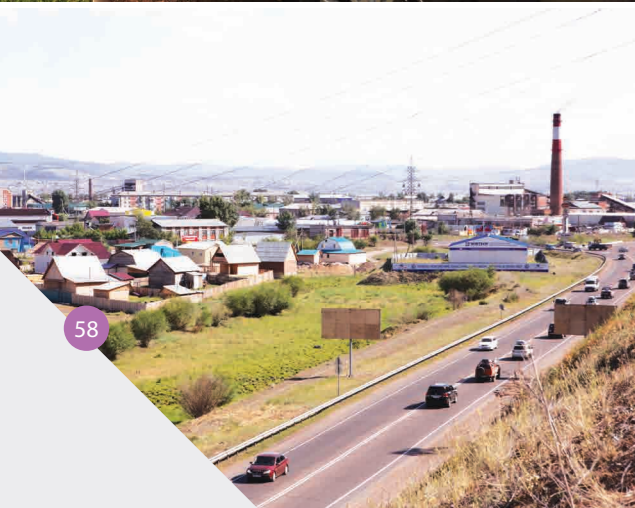
모스크바를 출발할 때만 하여도 마음가짐이 지금 같지는 않았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토렐리 2014〉라는 대장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정말 육상으로 한국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가 너무나 두려웠고 또 그만큼 설레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고도 니즈니 노브고로드를 지나 사마라, 오렌부르크를 거쳐 국경을 수 차례 넘기까지 만나는 곳곳마다 반가이 맞이해준 동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의 대장정은 순탄치 못했거나 성공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러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큰한 장국에 시원 칼칼한 백김치, 그리고 러시아 동포 고유의 베고자와 국시. 비슷한 외형과 달리 한국의 음식과는 사뭇 다른 맛이 낫지만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며 심려를 아끼지 않은 동포들의 정성이 가득하였기에 산해진미보다 더 맛있었고 온몸을 따듯이 녹일 유일한 수단이 되어주었다. 그네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바이다.

국경을 넘어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지아



선조들의 강제 이주 루트를 따라 이동하다보니 국경을 넘는 일은 수시로 있었다.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일주야를 달려 남부 카자흐스탄으로, 크질오르다와 우수토베를 비롯한 동포 거주지를 잠시 방문 할뿐, 우리는 긴 시간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었으며 우리 풍습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로 복귀하는 길이 복잡해 키르기지아를 거쳐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간 뒤 러시아의 알타이와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하는 길 밖에 없었다. 갈 길이 멀다보니 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 동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잠시간의 만남이 우리에게서 핏줄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자 꿀맛 같은 휴식이었다.

특히 국경을 넘을 때면 한류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어느 때보다 국경의 검문 절차는 까다로워서 매 국경마다 우리는 한참의 시간을 소요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에르네스트 단장이 러시아를 비롯한 방문국가들의 협조를 미리 얻어놓은 탓에 큰 무리는 없었다. 가장 장애가 된 부분은 방송 장비들이었다. 일일이 짐을 다 풀어서 하나하나 허가를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터. 갈 길이 바쁜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었다. 하여 빠른 검사와 확인을 부탁하고자 세관에 찾아가면 필자는 최대한 공손하게 사정을 하였다. 무뚝뚝하게 필자를 바라보던 국경 세관원의 첫마디는 다름 아닌 '아 유 주몽?'(Are you Jumong?)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철지난 드라마였지만 중앙 아시아에서는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몽이었다. 외국인 이다 보니 얼굴을 가늠하기도 힘들었겠지만 수염을 기른 필자를 아마도 드라마 속 조연 정도 생각했던 모양이다. 필자는 너스레를 떨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고구려 장수의 시늉을 하였다. 그제야 굳어있던 세관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는 옆자리에 업무를 보던 동료들에게 '카레이스키 주몽'(한국의 주몽이란 뜻)이라며 필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쿿속말로 서로 밀담을 나누며 껄껄 웃기 시작했다. 담당 세관원은 예를 갖춰 심사를 재빨리 마쳐



58

주었다. 그러면서 혹 다음 국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바로 주몽이라 말하라며 농담 반, 애정 어린 충고까지 권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소 띤 얼굴로 직접 검문소 출구까지 안내해 주었다. 한류의 덕을 이런 곳에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든 조상을 잘 뒤 타지에서 이런 대접까지 받는다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조상들의 뼈와 살이 묻힌 곳이자 러시아 한인들의 정신적 고향인 극동의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더러는 역수 같은 소낙비가 시야를 가로막기도, 더러는 거칠고도 세찬 황무지의 흙모래가 온통 대열을 뒤덮기도 하였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도, 지체할 수도, 여유를 부릴 수도 없었다. 언제나 우리는 잠시간 전열을 정비하고 또다시 길을 향해야만 했다. 이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은 것. 어느 누구의 강요도, 태곳적부터 내려온 천형을 진 것도 아니었건만 우리는 누구 하나 불평불만 없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묵묵히 길을 갔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이 땅을 가로질러 분단된 조국의 남과 북을 두발로 디디고 서고자 조상의 혼이 서린 영원의 땅을 향해 끊임없이 내달은 것이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어머니의 땅.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두 품 가득 안고 살아갈 그 땅. 바로 조국이란 이름의 어머니 땅을 향해 우리는 달렸다.

“조국이란 이름의 어머니 땅을 향해 우리는 달렸다”

오늘날 러시아 동포들에게 다소 이질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핏줄에서 시작하였으나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은 그들만의 역사에 존재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기도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땅에서 또 러시아 국적으로 오랜 시간 살아온 동포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꿈에도 그렸던 조상 땅으로의 회귀는 이미 우리 역사에 한 장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다 같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이다.

우리는 역사를 말할 때 흔히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언급하곤 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오늘날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들이 있기에 더욱 우리는 러시아 땅에서도 대한민국인임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겠다. 그들이 꿈꾸는 조국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한 점 의심치 않는다. 두 개의 고향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 되어 분단의 아픔을 나누지 않아도 될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며



60

오토렐리는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다. 남한 참가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러시아의 하산(Khassan)역에서 기차로 국경을 넘어 북한의 나진과 평양 등지를 거쳐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최종 목표지점인 한반도의 끝단 부산을 함께 향했다. 이제 얼마 뒤면 최종 종착역에 다다른다는 설렘에 모두가 흥분될 터, 그럼에도 경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관통하여 남쪽으로 내려갈 수록 대원들의 마음에는 아쉬움만 커져 갔다. 장장 1만 5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끝이 보인다는 까닭인걸까 표정들이 의외로 무겁다.

여름의 부산은 언제나 그렇듯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우리를 환영하기 위한 인파들로 가득했다. 한국 일정 동안 우리와 발을 맞춘 한국 켈리 팀들은 대열을 함께 이루어 남하하였으며, 최종 방문지의 환영 행사장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나와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우리를 맞이했다. 최종 목적지에 모두 차를 세운 후 우리는 함께 만세를 외쳤다. 에르네스트 단장의 얼굴에는 어느덧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으며 감격과 아쉬움이 교차한 대원들의 얼굴에도 말로 형언



하기 힘든 묘한 감정들이 비쳐졌다. 백년이라는 인간의 인생이 길다 치자면 우리는 이미 대장정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감한 터라 무언가 무념무상의 경지에 다다른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아마도 대장정을 마쳤다는 기쁨보다는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커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일이면 이제 해산을 하고 저마다 바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각자의 삶과 분야가 모두 다르기에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 달 반 동안 한술밥을 먹으며 식구처럼 생활하다보니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들었다. 반드시 다시 만나자는 기약을 남기고 이제 우리는 해단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길을 걸어왔기에 민족과 나이, 언어는 우리에게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지금의 이 기분을 평생 간직한다면 수십 년의 세월 후 회합한다 하여도 그리 어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 조선의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지 150년이 되던 해, 우리는 더없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오랜 길을 달려왔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도라산 역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해본다. 언젠가는 이 땅과 민족을 가로지르는 저 철책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두만강을 넘어 우랄을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첫발을 반드시 우리 시대에 열겠노라고. 만 오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을 마치고 부산에서 바라 본 해운대 앞바다가 다시금 그리움에 사무칠 때, 우리는 다시 달릴 것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박정곤

- 고리키 문학대학교 한러문화연구원 원장
- 고리키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기행> 러시아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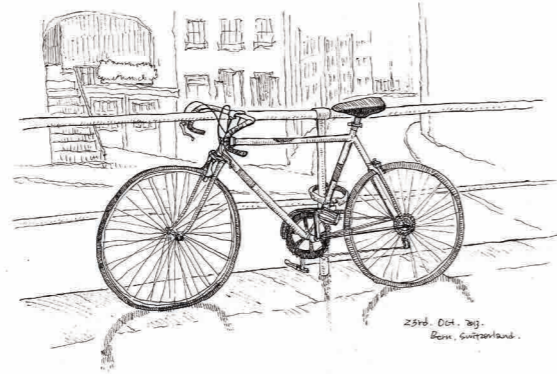
드로잉, 나만의 특별한 기록

글 · 그림 리모

그림 그리는 여행 작가로 활동하는 필자는 가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제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의 절대치를 비교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으레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Bern)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2년 전, 처음 스위스 여행을 계획할 때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풍스러운 도시 베른을 만난 뒤로는 도심 여행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스위스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베른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참 많은 도시입니다. 적갈색과 암회색 빛의 고풍스러운 구도심은 추적 추적 내리던 가을비와 몹시 잘 어울렸고, 아직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아닌 탓에 한 나라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번잡함이 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6km의 길이에 달하는 석조 아케이드 라우벤(Lauben) 아래를 걷는 동안에는 우산 없이 걸어도 가을비에 어깨가 젖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도시 베른. 여행에서 돌아와 확인해보니 이곳에서 그린 드로잉이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이 도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랑스러운 이곳을 펜 끝으로 기록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듯 여행드로잉은 저만의 여행의 기록이자, 제 자신에게 주는 여행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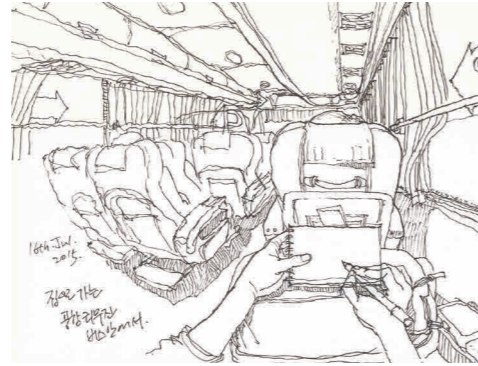
동네여행 프로젝트

2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약간은 막연했던 꿈을 좇아 38일간의 유럽 드로잉 여행을 다녀왔고, 그 고민과 노력의 결실로 한 권의 에세이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여행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낙서처럼 끄적거리는 것을 좋아했던 한 사람이 그 책을 계기로 사람들 앞에서 ‘여행드로잉’에 대해 강연하는 여행 작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동행 프로젝트’ 1기생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첫 수업의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기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드로잉으로 삶을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경험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즐거움을 나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드로잉 강좌가 어느덧 1기를 지나 2기를 종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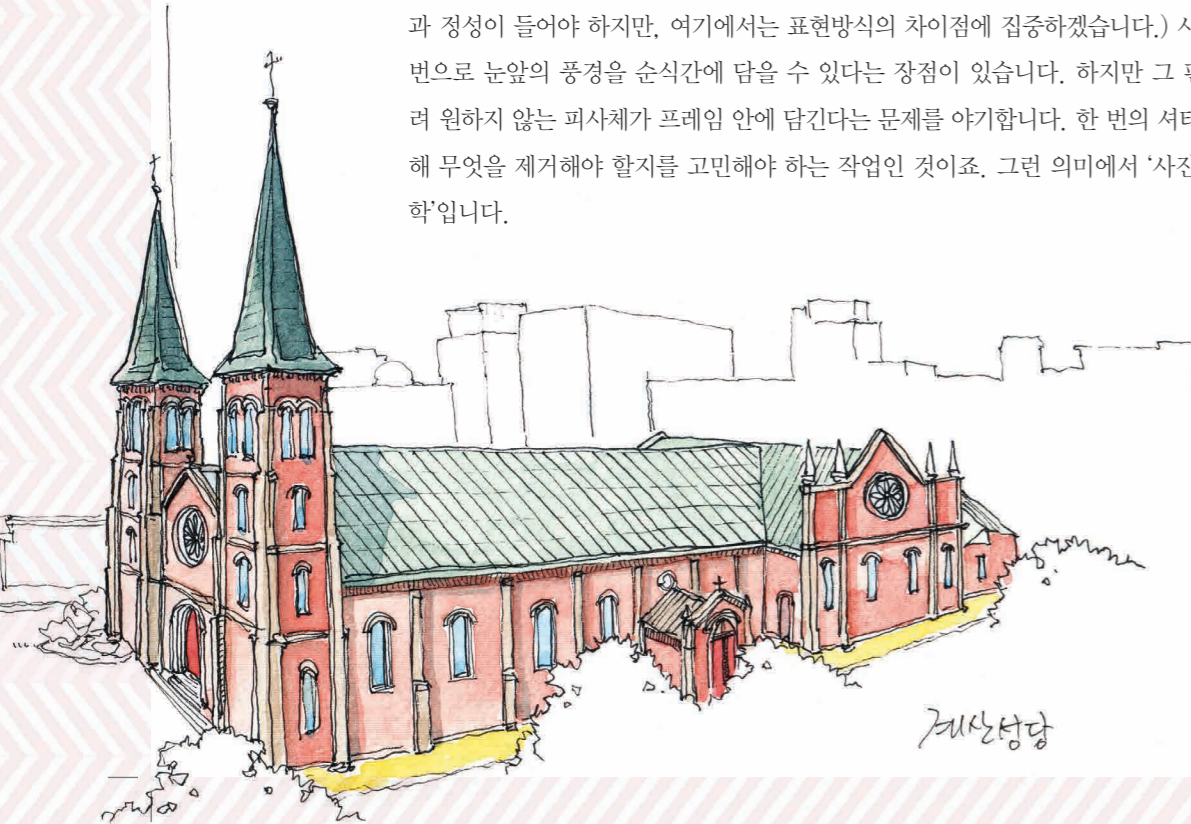
총 8강에 이르는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집중했던 단어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어떤 형태와 감정을 그리고자 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뿐, 모든 이에게 통용되는 가장 좋은 단 한 가지의 수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수강생들이 그림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그것도 좋은 표현이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선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학창시절의 미술 수업에서 느껴보기 힘들었던 ‘마음껏 내키는 대로 그리는 자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숙제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 익숙한 사물을 그려보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것 보다는 내게 친숙한 것을 그림의 소재로 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내 주위의 평범함 속에서 드로잉 소재를 발굴하는 훈련이 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림보다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먼저 익숙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드로잉을 통해 마침내 각자의 개성 넘치는 드로잉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 제 강의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하기의 미학, 드로잉

여행과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록 수단으로써의 드로잉을 설명할 때 주로 사진과의 차이점을 말하곤 합니다. (한 장의 걸작을 얻기 위해 사진 역시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표현방식의 차이점에 집중하겠습니다.) 사진은 셔터 한 번으로 눈앞의 풍경을 순식간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은 오히려 원하지 않는 피사체가 프레임 안에 담긴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 번의 셔터를 누르기 위해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빼기의 미학'입니다.



드로잉은 그런 점에서 사진과는 정 반대의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드로잉의 세계에서는 지면에 담기 싫은 것은 그저 그리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사진에 비해 생략의 과정이 비교적 쉽고 할 수 있지만, '하얗게 비워진 종이 위에 과연 무엇부터 담아내야 할까'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형태를 지면에 하나하나 더해나가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사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로잉을 더하기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는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 사진과 영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점점 더 손쉽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드로잉이 기록의 수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처럼 누구나 손쉽게 내 주위의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풍경을 종이 위에 직접 펜으로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미려스럽고 고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개인이 스스로의 개성 넘치는 드로잉 스타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초적인 기록 방식은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열 명의 사람이 그렸을 때, 열 가지 스타일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같은 대상을 여러 번 그리더라도 완전히 같은 느낌의 작품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드로잉은 작가 스스로 현 시점의 현실을 해석하여 선과 면, 색으로 재창조해내는 예술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사진에서는 현실에 대한 해석과 표현의 과정의 많은 부분을 카메라라는 기계가 대신해 주지만, 드로잉에서 그 역할은 온전히 작가 본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은 일상의 기록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다. SNS에 올리는 글과 사진을 비롯해 친구와 메신저로 나눈 대화들도 기록된 일상의 정보들입니다. 손쉽게 간편하게 남겨진 일상의 기록이 문득 지겹고 재미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마음 속 어딘가에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어쩌면 드로잉을 해야만 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리모(김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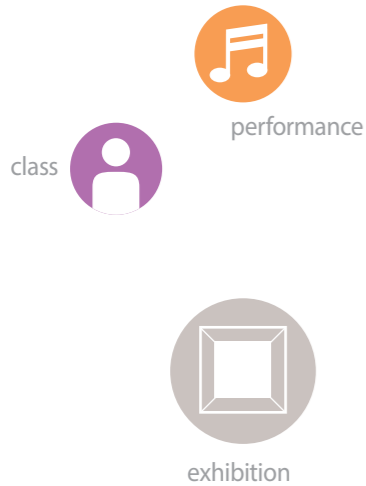
- 여행과 일상을 드로잉으로 기록하는 여행작가
- 달서문화재단 여행드로잉 (동행 프로젝트) 진행
- 사단법인 여행작가협회 회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활동 중
- 현대 리바트 웹진 등에 드로잉 여행기 기고, 다수의 책표지, 지면광고 일러스트 작업
- 38일간의 유럽 여행을 드로잉으로 엮은 에세이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출간

2015. Winter

Art event

'문화만개'에 실리는 단신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공연, 전시, 강좌 및 달서구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66



cultural art

2015 웃는얼굴 큰 잔치

달서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웃는얼굴 큰 잔치'가 지난 10월 17일, 18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전관 및 야외공연장에서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큰 잔치로 열렸다.

이번 큰 잔치는 체험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분야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만족도 높은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웃는얼굴 큰 잔치'를 만들었다.

'밥밴드와 카바레트', '김명환밴드' 등 인디밴드의 공연과 150인의 연주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펼친 '악기 모여라' 및 '이대희와 함께하는 DJ쇼'를 비롯해 웃찾사 '배우고 싶어요' 팀과 함께 한 '웃음 폭발쇼', 'FUN FUN 동아리 퍼레이드'와 '하회별신굿 탈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17, 18일 양일간 야외공연장 곳곳에서 펼쳐져 참가자들과 한바탕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 특히 17일 저녁 메인공연에는 '뽀빠이'의 대북과 레이저쇼와 '박주원과 집시밴드'의 화려한 플라멩코 연주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리



고 '이간단띠 앙상블'의 매력적인 중창에 이어 'CHOI 댄스컴퍼니'가 출연한 현대무용은 관객들을 아찔하게 했다. 마지막 무대인 초청가수 '박미경'의 공연에서는 관객 모두가 일어서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즐기는 콘서트를 만들어갔다. 또한 이들 동안 열렸던 '웃는얼굴 큰 잔치'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90여 개가 넘는 체험 부스(캐리커처, 재활용공예, 과학체험발명, 깨친맛 음식체험, 다문화 어울림체험 등)가 마련돼, 지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글·자료 |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제공

2015 신진작가 공모초대전

2015 신진작가 공모초대전이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렸다. 신진작가 공모초대전은 대구 경북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에게 작품 활동 및 전시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마련한 프로그램. 공모에 당선된 작가들의 작품은 초대전으로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당선작은 김재욱의 'HUMAN' 남진우의 'FACE series' 노아영의 '잉여잔상' 서현규의 'D-Light & Music'으로 초대전에 출품됐던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작가들에게 작품 활동 및 전시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마련한 프로그램. 공모에 당선된 작가들의 작품은 초대전으로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당선작은 김재욱의 'HUMAN' 남진우의 'FACE series' 노아영의 '잉여잔상' 서현규의 'D-Light & Music'으로 초대전에 출품됐던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작가_노아영 | 명제_잉여잔상
재료_종이에 연필 | 사이즈_가변설치 | 제작년도_2014



작가_김재욱 | 명제_HUMAN, every human can be someone 01
재료_Projection Mapping(01' 30" looping)
사이즈_가변설치 | 제작년도_2015



작가_서현규 | 명제_D-Light & Music
재료_Steel, Movie 10min, Sound
사이즈_5,400×1,200×1,600mm | 제작년도_2015

광복 70주년 기념사진전 「1945, 대구!」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가 이곳저곳에서 이어졌다.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1945, 대구!」 사진전을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17일 동안



열렸던 전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인물 사진'과 '독립 전후 대구지역 풍경' 및 '그 당시 근대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등으로 구성됐으며, 독립운동 관련 동영상을 전시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의 고마움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했다. 이번 전시의 자료는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와 대구근대역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구지역의 광복 전후 사진을 모아서 개최하게 됐다. 또한 압판을 활용한 '태극기 완성하기 핀 아트'와 '소원지로 완성하는 한반도 지도' 등 어린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료체험 코너를 갤러리 로비에 설치해 태극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우리나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작가_남진우 | 명제_FACE series and The Thinking Place IV
재료_Projection Mapping(01' 30" looping)
사이즈_가변설치 | 제작년도_2014

예술아카데미 - '먹고, 사색하고, 예술하라'

새로운 컨셉의 예술아카데미 <먹고, 사색하고, 예술하라>가 커피, 와인, 시와 사진, 클래식 등 풍부한 예술 인문학으로 채워져 수강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의사, 소믈리에인 황성연의 [초보자를 위한 와인매뉴얼]은 잘 익은 와인을 김치의 숙성 과정에 비유하며 어렵게 여기던 와인을 쉽게 풀어나갔다.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등 지역별 와인 특성을 알아본 다음 아페리띠프와 디저트에 어울리는 와인을 수강생들과 직접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리스타 배기철의 [아침에 즐기는 커피여행]은 한 잔의 커피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함께 나라별, 품종별 커피 맛을 테스트하며, 취향에 맞는 커피를 핸드 드립으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줬다.

[사진으로 쓰는 詩]는 김승열 사진작가와 정훈교 시인이 공동으로 진행한 강의로 직접 찍은 사진에 창작시를 첨가한 창의적인 강좌로 수강생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은 유럽미술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설명과 함께 미술사의 이해를 돕는 강좌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철우 작곡가의 [클래식 스토리텔링]은 음악과 연계된 문화코드를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왜 다시 클래식인가?'를 생각하며,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클래식과 문화의 힘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아페리띠프(aperitif)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시음하는 [초보자를 위한 와인매뉴얼] 수강생들



핸드드립으로 깊고 풍부한 맛의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강의 [아침에 즐기는 커피여행]

생활 속 문화 예술이 꽃피는, 문화강좌 축제 [나도 예술가]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문화 축제인 '나도 예술가' 전시와 공연이 갤러리와 청룡홀에서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와 3시, 차례로 열려 관객과 참여 가족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나도 예술가'는 배움의 땀방울로 이뤄진 수강생들의 재능을 알리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한편 일반인들도 함께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예술 분야로 채워졌다.



수강생들의 무대로 채워진 공연은 드럼, 색소폰, 통기타, 판소리 등 17개 팀의 150명이 참가해 발표했으며, 작품 전시회에는 꽃꽂이, 도예, 한지공예, 수채화, 캘리그래피, 수묵화, 서예 등 19개 강좌에서 배우며 만든 작품 220여 점이 전시돼, 전문가 못지않은 섬세한 솜씨를 보여줘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앞으로도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나도 예술가' 등 수강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 수강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민의 생활문화예술 보급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 584-8721, www.dsfc.or.kr
 글 | 류정선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강좌담당
 자료 |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사람이 선(善)하고 사랑하며 소통하는 '스'문화콘서트

우리 동네 예능인이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스' 문화콘서트는 우리 동네 예능인이 지역의 다양한 곳을 찾아가며 펼쳐지는 그야말로 구민의, 구민의 의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스' 문화콘서트는 구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가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0차례 공연을 펼쳤다. 가요, 국악, 현악, 밴드, 댄스 등 다양한 테마로 전통시장, 복지관, 차 없는 거리, 학교, 공원,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장소에서 연주자와 지역 예능인이 함께 만든 무대만큼 참가 예능인은 물론 일반주민들의 호응도도 아주 높았다. 우리 동네 예능인은 악기, 노래, 댄스 등 끼와 재능이 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모집했다.

생활문화예술로 발전하는 '스' 문화콘서트

좀 더 알찬 '스' 문화콘서트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개오디션(2015년 3월)을 통해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끼와 재능이 넘치는 예능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지역의 문화공연을 다채롭게 만들어갈 동네 예능인들의 활약에 기대를 하는 한편 '스'문화콘서트에서 펼쳐질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지역민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달서구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667-2174



2016년 '달서문화학교(제14기)' 수강생 모집

- 수강대상 : 지역주민
- 접수기간 : 2월 1일(월) ~ 2월 29일(월) 각 강좌별 선착순 모집(방문, 전화)
- 수 강 료 : 무료(단, 교재·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장 소 : 달서구문화원 강의실, 푸른방송 세미나실
- 문 의 : 달서구문화원(053-554-4800),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별관 2층

강좌명	수강기간	시간	장소	인원	개강
한문	10개월 (3월~12월)	매주 월 14:00~16:00	달서구문화원	30명	3월 7일
사진	10개월 (3월~12월)	매주 화 14:00~16:00	푸른방송	30명	3월 8일
가야금	10개월 (3월~12월)	매주 목 09:30~11:30	달서구문화원	8명	3월 3일
서예	10개월 (3월~12월)	매주 금 14:00~16:00	달서구문화원	30명	3월 4일

* 모집 인원이 개강 총족 인원미 미달될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음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Prehistoric Way
선사시대로 여행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선사인(先史人)들이 살기 시작한 달서지역은 청동기시대 유물은 물론 대구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어 대구의 역사를 2만년으로 끌어올린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소중한 달서 문화유산 탐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천동 입석

- A코스 진천동 입석(선사유적공원) ~ 진천동 고인돌(지석묘)
- B코스 대천동 청동기유적(한샘공원) ~ 월성동 구석기유적(조암공원)
- C코스 자유선택 | 월암동 입석, 상인동 고인돌, 상인동 입석, 월곡역사박물관 등



대천동 청동기유적

월성동 구석기유적

※ 탐방신청 : 달서구청 홈페이지 참고
☎ 053)667-2174(문화체육과)



2015 선사문화축제

탐방모습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강좌가 2016년부터 새로운 컨셉의 '예술 아카데미'로 거듭납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문학과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교육으로 가득한 '예술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